

碩士學位請求論文

中途脫落 學生의 學校適應教育
效果에 關한 研究

-濟州道 高等學生을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南 守

1999年 8月 日

中途脫落 學生의 學校適應教育
效果에 關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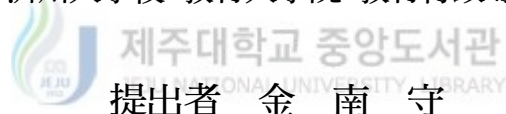
— 濟州道 高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淳 珩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金 南 守

金南守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中途脫落 學生의 學校適應教育 效果에 關한 研究

金 南 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李 淳 珩

본 연구는 중도탈락 학생의 학교적응교육을 받고 학교에 복교한 후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방법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중도탈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 2) 학교적응교육이 복교정책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 3) 복교 후 학교적응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표집대상은 제주도 지역 28개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1383명 중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교육을 받은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항구성은 학교적응교육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중도탈락 원인,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효과, 자아정체감 형성, 학교적응도 등 7개 요인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 되기 이전의 가정, 학교, 사회 생활의 만족과 중도탈락 관계에서 95%인 $P < .05$ 신뢰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만족이 일탈현상으로, 일탈현상은 다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은 평균 4.0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적응 교육 이후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심감에서 학년별로 99%인 $P < .01$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복교 후 1학기 동안은 일반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이 잘 적응되고 있으나, 2학기 이후 장기 무단결석, 가출, 징계 상황이 크게 증가하여 학교적응 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1999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다. 그 예로 1학기 동안 15일 이상 장기무단 결석자는 16%인데 반하여 2학기가 되면서 장기 무단 결석자 75.5%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학교적응교육은 학교복교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여름방학 이후 학교적응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여름방학이나 9월초에 재교육을 실시하고 추수지도 및 상담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청 단위에서는 단기적인 교육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특성화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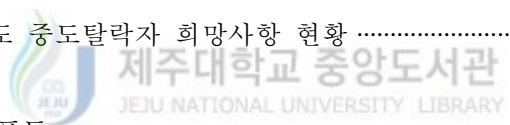


目 次

<초 록>

| | |
|---------------------------|----|
| I. 緒 論 | 1 |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
| 2. 研究 問題 | 3 |
| 3. 研究의 制限点 | 6 |
| II. 理論的 背景 | 7 |
| 1. 中途脫落의 原因 | 8 |
| 2. 中途脫落者에 대한 接近 | 13 |
| 3. 中途脫落 學生에 대한 善導政策 | 16 |
| III. 研究 方法 | 31 |
| 1. 研究對象 및 標集 | 31 |
| 2. 測定道具 | 32 |
| 3. 資料의 處理 | 34 |
| IV. 結果 및 解釋 | 35 |
| 1. 中途脫落의 原因 | 35 |
| 2. 學校適應教育의 效果 | 44 |
| 3. 復校 後 學校適應度 | 51 |
| V. 要約 및 結論 | 61 |
| 1. 要約 | 61 |
| 2. 結論 | 63 |
| <참고문헌> | 66 |
| <Abstract> | 69 |
| <부 록> | 71 |

表 目 次

| | |
|--|----|
| <표Ⅱ- 1> 중도탈락의 환경적 원인 | 10 |
| <표Ⅱ- 2> 중도탈락 원인 | 10 |
| <표Ⅱ- 3> 중도탈락의 충동을 느끼는 정도 | 11 |
| <표Ⅱ- 4> 중도탈락을 느낀 이유 | 11 |
| <표Ⅱ- 5> 중도탈락생의 가정 형편 | 12 |
| <표Ⅱ- 6> 중도탈락생의 가족관계 | 12 |
| <표Ⅱ- 7> 중도탈락자와 비행 증가율 | 13 |
| <표Ⅱ- 8> 복교 현황 | 20 |
| <표Ⅱ- 9> 복교생 부적응 실태 | 20 |
| <표Ⅱ-10> 제주도교육청 중도탈락자 조사 현황 | 27 |
| <표Ⅱ-11> 제주도청 중도탈락자 조사현황 | 28 |
| <표Ⅱ-12> '98학년도 중도탈락자 희망사항 현황 | 28 |
|  | |
| <표Ⅲ- 1> 표집 분포도 | 32 |
| <표Ⅲ- 2> 측정도구 구분 | 32 |
| <표Ⅲ- 3> 문항 구성표 | 33 |
| | |
| <표Ⅳ- 1> 중도탈락 전 생활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 | 36 |
| <표Ⅳ- 2> 중도탈락 전 생활만족도에 대한 계열별 차이 | 37 |
| <표Ⅳ- 3> 중도탈락 전 생활만족도에 대한 학년별 차이 | 37 |
| <표Ⅳ- 4> 가정불화 원인에 의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 39 |
| <표Ⅳ- 5> 교사와의 관계로 인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 40 |
| <표Ⅳ- 6> 나쁜 친구 유혹에 의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 41 |
| <표Ⅳ- 7> 자기자신의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 42 |
| <표Ⅳ- 8> 생활의 만족도와 중도탈락과의 상관관계 | 43 |
| <표Ⅳ- 9>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각의 차이 | 45 |
| <표Ⅳ-10> 자아정체감의 효과에 대한 지각의 차이 | 47 |

| | |
|------------------------------------|----|
| <표IV-11>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 지각의 차이 | 49 |
| <표IV-12> 친구관계 지각의 차이 | 53 |
| <표IV-13> 교사와의 관계 지각의 차이 | 54 |
| <표IV-14> 부모와의 관계 지각의 차이 | 55 |
| <표IV-15> 봉사활동에 대한 상황의 차이 | 56 |
| <표IV-16> 1학기 동안 무단결석 인식의 차이 | 57 |
| <표IV-17> 2학기 동안 무단결석 인식의 차이 | 58 |
| <표IV-18> 가출상황의 차이 | 59 |
| <표IV-19> 징계상황의 차이 | 60 |

圖 目 次

| | |
|-----------------------------------|----|
| <그림II-1> 중도탈락 원인의 출처에 따른 구분 | 14 |
| <그림II-2> 중도탈락 동기에 따른 구분 | 14 |
| <그림II-3> 중도탈락 재입학 과정 | 29 |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학교는 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및 규범을 교육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는 그 청소년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처럼 학력이 사회이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학교의 중요성이 각별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수가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도에서도 1970년대 이후 풍족한 사회구조가 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한 자아정체감의 상실,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관광지라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 그리고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한 인간관계 형성기회의 부족 등으로 세대간 가치관의 격차는 커져갔고 여기에 청소년들의 방황과 갈등 속에서 일탈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탈현상의 증가는 곧 학교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도탈락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산업일선에 끼어들어 사회 적응으로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자체가 곧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그들의 가족, 학교 및 사회에 다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학력위주 사회분위기를 생각할 때 학교 중도탈락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좌절과 소외를 느끼게 한다. 또한 교육기회의 상실로 진로 개척의 장애를 받게되고, 바람직한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상실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에 소속하게 될 위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자녀의 중도탈락으로 인해 부모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며,

형제들은 중퇴 청소년과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중도탈락은 국가 사회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중도탈락은 단기적으로는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로 인한 경찰력이 증가, 각종 보호 및 교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가 인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중도탈락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학교 생활의 실패'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중도탈락 학생에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학교적응교육을 통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줌으로써 비행 청소년을 줄이고 새삶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탈락한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은 95학년도 3.8%, 96학년도 4.0%, 97학년도 4.5%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95학년도에는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중 513명이나 중도탈락 하였다. 이 숫자는 100명중 3.8명의 학생이 중도탈락했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4.7%, 일반계 고등학교는 0.7%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중도탈락은 안되었지만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비행 청소년 및 장기 결석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몇 배가 더 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96학년도부터 매년 T교육원에서 3박 4일동안 학교적응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다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 중도탈락생을 대상으로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일선학교에 재입학을 허용하여 왔다. 이러한 재입학 학생들이 학교적응교육 이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제주도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의 개선방향과 일선학교의 역할을 재고해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 問題

청소년 비행문제는 1950년대 미국 뉴욕소재 칼럼비아 대학교의 머튼(R. K. Merton)²⁾이 발표한 아노미 이론과 시카고 대학의 서더랜드(E. H. Sutherland)³⁾의 차별적 접촉이론이 나타나면서 태동되었다. 그 후 코헨(A. Cohen)⁴⁾의 비행 하위문화이론과 마짜(D. Matza)의 중화이론이 서로 대립되면서 청소년 비행 이론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1960년대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도 2차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문제와 함께 청소년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문제 연구는 한완상에 의해서 아노미 이론은 기회인지와 능력인지라는 새로운 개념틀로 재구성 하였고 그 후 김준호⁵⁾에 의해 아노미이론과 문화이론을 국내에서 적용하여 경험적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석·박사 논문이 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학적 주요 요인들이 경험적 조사 연구로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경이 되면서 ‘가난=청소년 범죄’라는 전통적인 편견에서 출발하여 청소년 범죄 양상에 대한 연구물들이 줄을 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무역수지 흑자로 우리의 의식구조가 향락풍조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도 변하여 아노미 현상은 도래하게 되었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학교만을 중심으로 교육의 문제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가정·학교·친구

2) R. K. Merton(193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3) E. H. Sutherland(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4) A. Cohen(1955). *Delinquent Boys*. Chicago : Free Press.

5) 김준호(1973), “한국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 아노미, 하위문화, 기회구조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21~24.

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 친구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가출·공부압력·중퇴·음주와 음란물·TV 폭력물 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청소년이 성인범죄로 발달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⁶⁾가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연구들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로 기존의 연구가 주로 횡단적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비행친구와 사귀어서 비행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비행을 하게 되어 결국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되었는지에 관한 엄밀한 검증과정이 부족했다. 둘째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서베이를 통한 연구에 치중해 참여관찰 혹은 사례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사회에 맞는 이론 및 비행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지적할 사항은 조사대상이 주로 학생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중퇴자 및 공장근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보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 및 범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여러 갈래의 청소년 문제 중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진 중도탈락자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1997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중도탈락자 재입학 교육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에서도 1996년 7월 달부터 중도탈락자 현황을 도교육청과 도광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1997년 2월달에 처음으로 학교장의 승락을 받아 학교적응교육에 신청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여 '99학년도까지 3년째 학교에 복교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논문은 없으며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서 발표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학교적응교육의 효과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기록될 것이다.

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98), 「교육학대백과 사전」, 서울 : 도서출판 하우, pp.2553~2558.

본 연구자는 제주도 중도탈락자 재입학 학교적응교육의 효과와 학교에 복교한 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1) 학생들이 중도탈락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1)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기 이전 생활의 만족도와 중도탈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중도탈락 원인간의 성별·계열별·학년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중도탈락생들이 중도탈락 이전의 생활만족도와 중도탈락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이 복교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 (1)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이 학교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 (2) T교육원에서 투입되는 프로그램들이 고등학교 재입학에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T교육원 프로그램들이 ‘자아정체감’과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에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복교 이후에 학교적응은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 (1) 복교 후 친구, 교사, 부모 등과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 (2) 복교 후 1학기 적응도와 2학기 적응도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 (3) 복교 후 학생들이 성별·계열별·학년별로 학교적응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研究의 制限点

1)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 고등학교 중도탈락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제주도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학교적응교육은 T교육원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3) 학교적응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Ⅱ. 理論的 背景

'80년대 이후 한해에 평균 7~8만명의 중·고생이 중도탈락되고 있으며,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교 졸업 때까지 100명 중 10명 정도가 탈락되는 현상⁷⁾이 벌어지고 있다. 숫적인 변화는 적은 편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변화가 많다.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95년 : 1.4%)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95년 : 4.0%)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⁸⁾ 실업계 고교 중에도 한 해에 2~3백명이 중도탈락되는 심각한 현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야간부가 특히 심각하다. 서울 B공고 200여명('95년), S상고는 300여명('95년)이 제적 또는 자진 중도탈락 되었다.⁹⁾ 이들이 중도탈락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가족 기능의 약화, 입시 위주의 교육, 향락 문화의 번창 등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자발적 중도탈락생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96년 연두에 학교에서의 중도탈락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매스컴에서도 중퇴처분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중도탈락이 감소되는 듯 하였으나 문제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요즘 와서는 학교측에서 문제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퇴처리 하거나 권고 전학을 종용하여 자퇴형식을 취하는 중도탈락자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도탈락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중도탈락의 원인, 중도탈락자 구제 방안, 중도탈락생을 위한 선도 정책 등을 설명하고 T교육원에서의 학교적응교육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논하고자 한다.

7) 이영희(1992),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마련」, 한국청소년연구원, pp.9~10.

8) 새교육신문(1997.10.6.) - '98년 개교예정 대안학교.

9) 새교육(1997) - 중퇴의 사회적 관계, 3월호.

1. 中途脫落의 原因

본 절에서는 중도탈락의 성격과 원인을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도탈락의 성격

중도탈락이라 함은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 이탈 현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중퇴’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도탈락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중도탈락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중도탈락자’로 보며, 초등학교와 농·어촌지역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므로 중도탈락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주도 고등학교 중도탈락자에 한하여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도탈락의 5가지 유형을 모로우(Morrow, 1986)¹⁰⁾이론을 통해서 보면 ①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학생 ② 학교와의 관련을 원치 않은 비제 유형 학생 ③ 학교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는 실패자 ④ 능력은 있으나 가정과 학교 요구의 불일치로 중퇴하는 학생 ⑤ 결국은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중퇴자인 중지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같은 중도탈락자는 개인적으로는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장래 진로 개척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갖다주는 사회문제로 야기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는 학교로부터의 격리 → 의미 있는 자아 형성의 기회 상실 → 자아 정체감의 미성숙 → 사회적 부적응자 → 범죄인으로 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¹¹⁾ 결국은 중도탈락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사전에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일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고교 졸업생이 70% 정도에 불과한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10) 교육월보(1997) -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1월호, p.53.

11) 박성수(1998), 「중퇴생 예방의 대안과 과제 - 1998청소년 상담학술 세미나」, 제주청소년 종합상담실, pp.15~16.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 중도탈락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도탈락생은 매년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약 11만 명으로 평균 2.1%에 달하고 있다.¹²⁾ 그러나 서구 국가들에 비해 그 심각성이 아직은 덜한 편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비행 등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에게도 중대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중도탈락의 원인이 과거의 가정형편, 결손가정, 성적부진 등에서 최근에는 학교 규율에 대한 저항, 이성관계, 약물 오남용, 가출, 퇴폐문화 접촉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¹³⁾ 특히,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의 병폐는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은 물론 상당수의 학생들을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잠재적 중도탈락생¹⁴⁾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2) 중도탈락의 원인

T교육원에서 사례조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① 학교에 흥미가 없어서, ② 학업성적으로 인한 고민, ③ 교사의 체벌, ④ 가정불화, ⑤ 부모와의 갈등, ⑥ 불량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중도탈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 개발원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① 학교 환경적 요인 ② 가정적 요인 ③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학교 환경적 원인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엄한 학교 규율,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등 폐쇄적인 학교 구조에서 초래된 ‘학교 문제’가 중요한 중도탈락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학생들은 폐쇄적인 학교 구조와 개방화된 사회 체제 사이에서 개인적·사회적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를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 박재운 외(1996), “학교폭력 유발 및 증가 요인과 대책 - 교내폭력과 부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pp.32~33.

13) 한유진(1995), “비행청소년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pp.95~99.

14) 허철수(1998), “잠재적 중퇴생을 위한 시·군·구 상담실의 상담지원 체제 - 중도탈락학생 예방체제 개발을 위한 콜로키움”, 청소년대화의 광장, pp.108~109.

교육부의 설문 조사 결과 <표Ⅱ-1>를 보면 학교의 엄한 규율(53.3%), 성적 위주 교육(49.8%) 등이 중요한 중도탈락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¹⁵⁾

<표Ⅱ-1> 중도탈락의 환경적 원인

| 순 위 | 중 퇴 사 유 | N | % |
|-----|----------------|-----|------|
| 1 | 엄격한 학교규율 | 138 | 53.3 |
| 2 | 불량한 친구관계 | 131 | 50.6 |
| 3 | 성적위주의 교육, 성적압박 | 129 | 49.8 |
| 4 | 성격결함, 인내력 부족 | 128 | 49.4 |
| 5 | 돈벌어 자유로운 생활 | 117 | 45.2 |
| 6 | 그냥 학교가기 싫음 | 83 | 32.0 |
| 7 | 교사가 싫음 | 81 | 31.3 |
| 8 | 가정불화, 가족관계 | 69 | 26.6 |

자료 : 교육부 조사 ('96. 11월조사)

또한 KEDI의 연구 결과¹⁶⁾ <표Ⅱ-2>에서도 중퇴 원인이 학교문제(59.5%), 가정문제(17.0%), 친구 유혹(16.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탈락자와 비진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해당란을 모두 선택하게 하여 조사된 것이다.

<표Ⅱ-2> 중도탈락의 원인

| 구 분 | 학교 문제 | 가정 문제 | 친구 문제 | 기 타 | 계 |
|-----------|-----------|----------|----------|---------|----------|
| 중학교 중도탈락자 | 80(58.8) | 24(17.6) | 27(19.9) | 5(3.6) | 136(100) |
| 고 교 중도탈락자 | 168(59.8) | 47(14.9) | 42(14.9) | 24(8.6) | 281(100) |
| 계 | 248(59.5) | 71(17.0) | 69(16.5) | 29(7.0) | 417(100) |

15) 교육월보('97년 7월호) - 교육부('96년 11월 조사) : 5개 도·시 중고생 약 2만 2천명 조사.

16) 장석민 외(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04.

연세대 연구¹⁷⁾에서도 전국 중도탈락생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면접한 결과 학교에 대한 흥미 상실(48.5%)이 중도탈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5개 시·도 중고생 약 23,000명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한 결과¹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엄격한 학교 규율을 첫 번째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에 의한 차별 대우 등 “학교 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중도탈락의 충동을 느낀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Ⅱ-3>를 보면, 응답자의 36.1%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중도탈락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표Ⅱ-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63.6%)를 첫 번째로, 학업 성적(42.1%)을 그 다음으로 꼽고 있었다.¹⁹⁾

<표Ⅱ-3> 중도탈락 충동을 느끼는 정도

| 정 도 | % |
|-----------------|-------------|
| 매우 많았다. (5회 이상) | 12.4 |
| 약간 있었다. (5회 미만) | 23.7 |
| 별로 없었다. | 27.7 |
| 전혀 없었다. | 36.2 |
| 응답자 (N) | 22,023(100) |

<표Ⅱ-4> 중도탈락을 느낀 이유

| 이 유 | % |
|------------|-------|
| 학교가 재미 없어서 | 63.6 |
| 학업성적 문제 | 42.1 |
| 가정불화 | 14.2 |
| 경제적 사유 | 7.2 |
| 친구 권유 | 6.5 |
| 응답자 (N) | 8,872 |

이를 종합해 볼 때 중도탈락생과 재학생은 공히 “학교문제”가 중도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상당수의 학생들도 동기만 주어

17) 송 복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pp.47~48.

18) 교육월보('97년 7월호) - 교육부 '96년 11월 조사.

19) 교육월보('97년 1월호) - 「중도탈락 원인 분석」, pp.54~55.

지면 중도탈락의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중도탈락자로 예견할 수 있는 바,²⁰⁾ 중도탈락생 예방을 위해 학교 체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정적 원인

<표Ⅱ-5>를 보면²¹⁾ 과거의 중퇴 문제는 대부분 결혼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늘날은 많은 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정상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Ⅱ-6>를 보면²²⁾, 중도탈락자 69.4%가 양부모 생존, 85.3%가 중류 이상의 생활 수준의 학생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결혼 가정에서도 중도탈락은 부모가출, 부모 별거, 부모 다툼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Ⅱ-5> 중도탈락생의 가정형편

| 생활수준 | 상 | 중 | 하 |
|------------|---------|-----------|----------|
| N : 259(%) | 14(5.4) | 207(79.9) | 38(14.7) |

자료 : KEDI 연구 결과(1988)

<표Ⅱ-6> 중도탈락생의 가족관계

| 부모유무 | 부 모 | 편 부 | 편 모 | 기 타 |
|----------|-----------|---------|----------|---------|
| N:320(%) | 222(69.4) | 27(8.4) | 56(17.5) | 15(4.7) |

자료 : 부산시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3) 사회 환경적 원인

중도 탈락 요인과 관련된 사회 환경적 원인으로는 학력 위주의 사회풍토와 지속적인 향락 산업의 번창²³⁾ 등이 지적되고 있다. ①학력 위주의 사회 풍토로는 학교를

20) 허철수(1998), “잠재적 중퇴원인과 상담지원 정책 연구”, 제주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pp. 14~16.

21) 광주광역시(1996) - 중·고교 중퇴 청소년 종합대책, pp.32~33.

22) 부산광역시(1996) - 중·고교 중퇴 청소년 종합대책, pp.48~49.

23) R. G. Caldwell and J. A. Black(1971).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Ronald Press. pp.93~108.

입시 위주의 교육장으로 격하시켜 인성교육을 저해하고, 과열 과외로 과중한 가계 부담과 학습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⁴⁾ ②향락 산업의 번창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을 조성, 탈선을 조장하고 가출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일터(유흥업소, 주유소, 배달원 등)와 숙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중도 탈락자의 범죄율을 <표Ⅱ-7>²⁵⁾에서 보면, '81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0명 중 3명이 범죄에 연루될 정도로 중퇴와 사회적 비행과의 연관성도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7> 중도탈락자와 비행 증가율

| 구 분 | 1981 | 1984 | 1987 | 1990 | 1993 |
|-------------|--------|---------|--------|---------|---------|
| 소년 범죄자 | 88.936 | 104.578 | 97.849 | 105.567 | 110.604 |
| 중도탈락생범죄자(㉑) | 13.436 | 19.402 | 19.687 | 20.637 | 21.637 |
| 중도탈락생(㉒) | 81.878 | 93.251 | 84.376 | 76.213 | 61.332 |
| (㉑/㉒) | (16.4) | (23.3) | (23.3) | (27.4) | (35.3) |

자료 : 법무부 보호국 소년 2과(1995).

2. 中途脫落者에 대한 接近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포악화 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에 노력하게 되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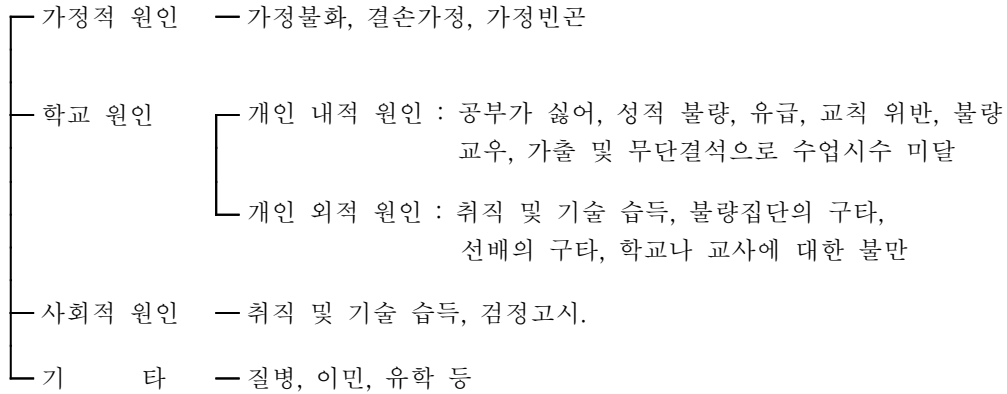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학교 중도탈락에 미치는 원인을 송광성 등의 연구가²⁶⁾들에 의하면 ① 중도탈락 원인의 출처에 따른 구분과 ② 중도탈락 동기에 따른 구분으로 나누어 설명

24) 권이중(1995), 「청소년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p.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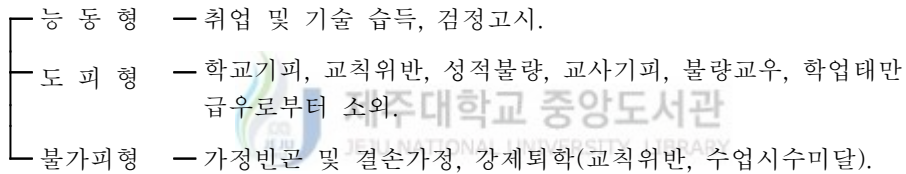
25) 법무부(1995), 「보호소년통계 제10집」, 법무부 보호국 소년 제2과, pp.32~34.

26)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pp.19~22.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림 II-1]과 [그림 II-2]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림 II- 1] 중도탈락 원인의 출처에 따른 구분



[그림 II- 2] 중도탈락 동기에 따른 구분

그들은 중도탈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① 상담활동의 활성화로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담교사 확대를 추진하고, 상담 봉사제를 활용하며 ② 청소년이 미숙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황기간이기 때문에 현행 징계제도를 시정하여 징계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²⁷⁾. 또한 ③ 무단결석생의 관찰지도 ④ 중도탈락생의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며 ⑤ 중도탈락생에 대한 직업훈련원 및 직업학교에 입학 장려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도탈락생의 사회적응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숙영 등이²⁸⁾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서 보면 중도탈락 청소년 문제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국가사회

27) 박재윤(1997), “학생징계제도와 운영실태” 새교육 97년 3월호, pp.63~64.

28) 이숙영 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pp.79~86.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회 지원상황을 ① 일부 대안학교와 검정고시학원에서 중도탈락생들에게 진학지원을 하고 있으며 ②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에서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하여 진로 개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에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③ 중도탈락 청소년들에게 생활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④ 이들 중도탈락 청소년을 지도하는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중도탈락생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1970~1980년 초까지 청소년 비행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1980~1990년 동안은 청소년 비행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중엽 이후부터 청소년 비행대책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면서 청소년 중도탈락 예방과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로는 청소년 연구소와 청소년대화의 광장 등을 중심으로 ① 대안학교 설치 허용 ② 직업훈련원 입소 권장 ③ 청소년 보호법 제정 ④ 상담정책의 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복교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의 성패에 대한 제시가 일부 언론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도탈락생에 대한 학교 복교제도는 1996년 2학기부터 ‘학교복귀 특별기간’을 설정해 '97학년도에 학교복교정책이 처음으로 추진되어 금년도('99년)가 세 번째 실시되는 최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이러한 학교복교 정책에도 한계가 있어 재입학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적응이 안되 재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97학년도 J농고생이 취객을 상대로 집단 폭행 및 금품갈취사건과 98학년도 S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공공물 파손 및 수업거부 등을 주동하여 5명의 학생이 입건되는 사건 등이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재입학 학생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과 학교적응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방법과 제도 개선을 찾는 데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9) 전국학생수련교육연구회(1999), 「학생수련교육」 제3호, pp.187~191.

3. 中途脫落 學生의 善導 政策

내무부와 교육부는 96학년도에 청소년 중도탈락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 중의 일부에 대해서 학교에의 복귀, 대안학교 등에 입학 조치,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하였다³⁰⁾. 또한 중도탈락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청소년 일반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체제를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6학년도부터 본격화된 중도 탈락생에 대한 대책과 기존의 청소년 시설 중에서 중도탈락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주도 중도탈락생에 대한 학교복교 지원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중도탈락에 대한 선도 정책

지금까지 선도 정책은 상담을 통해 선도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1997학년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선도정책은 ①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정책 ② 학교복교 정책 ③ 취업 및 진로 준비 정책 ④ 상담 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1) 보호 및 관리 정책

청소년 보호법·교육법의 이념상을 볼 때, 중도탈락생에 대한 보호와 관리,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중도탈락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중도탈락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지원 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6학년도에 내무부의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대책이 있었다. 내무부는 중도탈락 청소년에 의한 학교주변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진로희망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복교, 직업훈련 및 취업, 재활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 바

30)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 “중도탈락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pp.84~86.

있다.

둘째, 1996학년 교육부에서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내용은 학교모델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수용하고, 학교 운영체제를 혁신하여 학교생활 부적응현상의 최소화, 부적응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구축³¹⁾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부 종교기관 상담실에서는 중도탈락 청소년의 중·저소득층 청소년의 가난극복을 위한 공동체 일터 및 가출, 가정과탄으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예컨대, 카톨릭계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전국 9개소-남자의 집 7개소, 여자의 집 2개소)이나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나눔의 집(전국 7개소)은 오갈 때 없는 청소년을 일시보호 혹은 장기 수용하여 집중적인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³²⁾ 이상의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내무부의 중도탈락 청소년 대책은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추진대책(복교, 취업, 직업훈련, 재활교육)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도 청소년과의 대책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회적인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행된 대책에 대한 사후평가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복교조치의 경우 복교생 중에서 36.2%가 다시 부적응하여 학교를 떠났는데³³⁾ 이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하겠다.

둘째, 제시된 과제에 비하여 추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다. 실태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20~30여일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취 및 소재파악에서 12.2%에 해당하는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로희망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는 43.9%에 해당하는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⁴⁾ 또한 중도탈락 청소

31) 박인심(1996), “비행학생의 학교조직관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pp.27~29.

32) 청소년백서(1997), 「청소년 비행 - 청소년 비행의 동향」,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발행, pp.507~512.

33) 조선일보('97. 7. 16.) - 「복교생 부적응 실태」

34) 정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 선도 대책」, 진로교육연구 제7집, pp.42~45.

년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부모가 대리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중도탈락 이후에 서울이나 대도시로 옮겨간 청소년의 수도 상당수가 있어 거주지 변경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많은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한편, 교육부의 중도탈락 예방 대책은 중도탈락 문제에 관련된 학교내의 구조적 측면을 개선하여 중도탈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교육부가 바로 중도탈락 문제의 근원에 해당하는 학교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대안학교는 획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도탈락 예방대책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실천과정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및 협조를 얻는 문제와 정책을 수행할 학교적응교육을 시킬 교사에 대한 교사교육 및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기관의 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 중도탈락생과 가출의 문제를 함께 겪는 중도탈락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보호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반면, 규모가 영세하고 보호시설간의 연계와 상담기관 및 그 밖의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중도탈락 청소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도탈락 문제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중도탈락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요망된다.

셋째, 중도탈락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기관간의 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2) 복교 정책

중도탈락 청소년 중에서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교 지원체제는 현재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복교조치로서 현재 중도탈락생의 경우 연중 수시로 복교하고 싶은 학교에 복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중도

탈락생의 복교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내의 통제, 훈육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장이 복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복교생이 복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나 관련학교에 복교가 가능하다. 교육부가 1996학년 중·고교를 중퇴한 125,387명을 상대로 학교복교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11.5%인 14,526명이 학교적응교육을 받고 학교 복교를 희망하여³⁵⁾ 전국적으로 1997학년 2월달 중에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여 복교시킬 것을 각 도교육청에 하달하였다. 이 가운데 중학생의 20%인 7,943명, 고교생은 7.7%인 6,583명이 복교했다.³⁶⁾

둘째, 대안학교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현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전국 7개교로 이들 학교는 대체로 정규학교에 비해서 교칙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검정고시 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학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경우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기 원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진학 지원기관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특수한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을 위해서 98학년도부터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허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복교지원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교육을 받고 이루어진 복교조치는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추진되어 중도탈락 청소년의 복교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의 <표Ⅱ-8>과 <표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96학년도 총 복교자 수는 14,526명(전체 중퇴자 수의 11.5%) 중에서 재입학 후 다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의 비율은 36.2%이다.

35) 조선일보('97. 7. 16.) - 「복교생 부적응 실태」

36) 중앙일보('97. 7. 2.) - 「특성화 고교 내년 10여곳 문연다. 최소정원 60명 - 골프에서 제빵까지」

<표Ⅱ-8> '97학년도 복교현황

| 계 열 별 | 95~96년 중퇴자 | 97년 복교신청자 (비율) | 96년 복교자 | 97년 복교자 | 계(복교 비율) |
|-------|---------------|-------------------|---------|---------|---------------|
| 중 학교 | 39,791 | 5,206(13.0%) | 2,898 | 5,045 | 7,943(20.0%) |
| 고등학교 | 85,576 | 5,598(6.5%) | 1,916 | 4,667 | 6,583(7.7%) |
| 합 계 | 125,387 | 10,804(8.6%) | 4,814 | 9,712 | 14,526(11.6%) |

자료 : 조선일보 (97. 7. 16.)

<표Ⅱ-9> '97학년도 복교생 부적응 실태

| 구 분 | 미등교 | 비행 관련 | 학습 부진 | 교칙 위반 | 휴학등 | 계 | 96-97복 교생 | 부적응학생 비율(%) | 복교생중 재탈락자 |
|------|-----|----------|----------|----------|-------|-------|--------------|----------------|--------------|
| 중 학교 | 305 | 169 | 1,083 | 343 | 728 | 3,164 | 7,943 | 39.8 | 844 |
| 고등학교 | 154 | 74 | 779 | 203 | 394 | 2,101 | 6,583 | 31.9 | 716 |
| 계 | 459 | 243 | 1,862 | 546 | 1,122 | 5,265 | 14,526 | 36.2 | 1,560 |

자료 : 조선일보(97. 7. 16.) - 96. 9. 1.~97. 5. 31.까지 결과 분석

복교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복교생 준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복교생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안학교는 지원자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조직, 재정, 제도 및 사회적 인식 등에 있어서 대안교육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에서 부적응학생을 나쁜 학생들이란 인식 때문에 대안학교의 설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⁷⁾ 대안학교가 중도탈락자를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수의 증가, 교사의 확보, 재정의 확보,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⁸⁾

37) 중앙일보(97. 7. 2.) - 「98년 설립예정 특성화 고교」

38) 중앙일보(97. 10. 12.) - 「학교폭력 우리가 막을래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복교지원체제가 중도탈락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지원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교사의 공급과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³⁹⁾ 구비되어야 한다.

(3) 취업 및 진로준비 지원 정책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향 중에 하나는 취업알선 혹은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직업교육이다. 즉, 진학하지 않더라도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 자기 가치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취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취업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업 및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25개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 및 훈련 후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훈련 받을 수 있는 기술유형은 전기 및 건설관련 기술, 사무자동화 관련 기술, 인쇄관련 기술, 서비스(조리, 미용, 의상 등)관련 기술 등이다.⁴⁰⁾ 교육대상은 14세 이상의 자로서, 비진학 청소년이나 중도탈락학생 등이다. 이들 학교는 전원에게 수강료, 급식, 연 2회 훈련복 등 재훈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도탈락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직업학교를 통해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다.⁴¹⁾

셋째,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통해서 인정직업훈련원과 기술계 사설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중도탈락 청소년은 수강료 지원과 생활보호 대상 청소년에게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취업준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9) 이진영(1997), “대안학교 내년 개교, 얼마나 가능한가” 새교육, 1997년 7월호.

40) 이재창(1997), 「중퇴생의 예방을 위한 진로 상담 강화 방안」, 진로교육연구 제7집, pp. 36~38.

41)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소, pp.32~3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원하기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익혀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하지만 중도 탈락 청소년을 위한 취업알선 및 진로준비 지원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변화하는 직업구조에 따른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양성 체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은 주로 2차 산업에 속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중도탈락 청소년은 3차 산업과 관련된 직종과 정보 관련 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경우,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생활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과정에서 쉽게 좌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지도 및 상담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상담활동 활성화 정책

중도탈락자들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개념, 부정적인 세계상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중도탈락자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여 삶의 용기와 지혜를 키워줄 수 있는 상담이 적극 요청된다.

중도탈락자 상담지도기관으로서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대화의 광장, 시도청소년 상담실,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교육부의 교육연구원 및 교육청의 상담실, 보건복지부의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사회단체 상담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상담실과 학교간 연계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 97학년도 2~3월 사이에 각 시도청소년상담실에서 학교에 재입학한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아동상담소의 늘푸른 교실과 희망교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강의, 심성개발, 진로지도, 레크리에이션, 시청각교육, 역할극 연습, 개별상담, 집단상담, 놀이, 부모상담 및 교육, 등산, 대화의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⁴²⁾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및 부모들과 상담하여 일시 보호치료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대인관계기술, 학교적응기술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⁴²⁾

한편 이런 상담실들이 정학생 등의 잠재적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상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첫째, 학교와의 협조관계가 어려워 집단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예컨대, 과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대한가족계획협의회 등지에서 정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학교와의 협조관계를 구성하기 어려워 무산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일선의 많은 교사들은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과 학생에 관한 한, 오로지 학교만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둘째, 상담기관의 수용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각 상담기관은 전문인력의 수, 시설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환경이 열악한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반하여, 상담기관은 숙박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실정이다.

셋째,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으로 중도탈락자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상담은 문제가 있는 학생이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넷째, 중도탈락학생을 전담하는 상담기관 및 상담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탈락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중도탈락청소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중도탈락청소년과 관련된 진학 및 진로 지원체제, 취업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담실은 종합상담실의 형태를 띠고 있어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5) 비행교정 지원정책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중도탈락청소년의 비율은

42) 이소래·최은영(1997), 「비행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II개발 연구」, pp.19~20.

43) 청소년 백서(1997),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리 - 청소년 비행의 예방」,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 pp.504~507.

35.3%에 해당한다. 또한 중도탈락청소년의 생활양태로 보아 이들이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도탈락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교정 지원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 및 범죄행위에 연관된 청소년들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수용, 관리하고 있다. 소년원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해서 송치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성행교정을 위한 교정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수용되어 있다.⁴⁴⁾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중도탈락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년원에 있는 중도탈락청소년들은 교정교육, 특수상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격과 행동의 교정과 학교교육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단기보호관찰(6개월) 결정을 받는 소년,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중기 혹은 장기 보호관찰 판결을 받는 소년(1~2년), 형사법원에서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판결을 받는 소년(1년),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소년(6월~2년),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소년(잔형기간)이 보호관찰되고 있다.⁴⁵⁾ 96학년도 시·도청소년과 조사에 의하면, 전체 중도탈락청소년의 약 0.5%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내용은 개별적, 집단적 상담과 보호자 가족상담, 각종 선도교육,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긴급사유발생시 응급구호비용의 지급 등이다.

현재 중도탈락청소년에 대한 비행교정지원체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행예방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많은 중도탈락청소년들이 가출 및 유흥업소 취업 등으로 비행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⁴⁶⁾ 가출 청소년이나 유흥업소종사

44)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47~49.

45) 김창선(1991), “청소년비행과 범죄양상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42~46.

46) 김재홍(1991),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건전 육성 대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pp.27~31.

청소년들의 조기발견과 수용을 통해 진학 및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검거된 비행청소년의 처우 및 치료의 자료로서 사용되도록 경찰단계에서부터 비행의 경중뿐만 아니라 개정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두어 전문가에 의한 판결 전 조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시기의 상실로 필요 없는 낙인과 범죄학습을 부추길 수 있고, 개입의 과다로 인하여 처분이나 처벌이 가질 수 있는 위력마저 상실시켜서 범죄억제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2)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 지원정책

제주도에서도 '97학년부터 중도탈락자 학교적응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하여 ① 학교적응교육의 목적 및 방침 ② 학교적응교육의 도입 ③ 학교적응교육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적응교육의 목적 및 방침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 중 재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복교전에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켜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적응교육의 방침으로는 “중·고등학교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교육-고교생 진취력 배양 교육”이라 하고 3박 4일 동안 T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입소식과 수료식에 부모와 중도탈락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소정의 학부모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개발하여 전문가의 검정을 거쳐 투입하고 강의식 교육방법을 지양하며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대화와 토의 및 실연·현장체험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부모와 학생간의 숨김없는 대화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여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았다.

(2) 학교적응교육의 도입

1996학년도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문제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각도 교육청과 전국 광역단체에서 중도탈락자 조사를 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정책에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도 도교육청과 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전화상담으로 중도탈락자 신상 파악 및 진로희망과 학교재입학 유무를 확인하고 처음으로 학교복교를 희망하는 51명의 고등학교 중도탈락자들에게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T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가지고 본래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서 복교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였다. 교장에게 복교유무를 결정하던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복교시켜 주도록 함으로써 비행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다. 만약 학교장이 품행이 너무 불량하여 타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도탈락자는 학교적응교육 참가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학교 재입학은 보장된 것이다.⁴⁷⁾ 이러한 방법으로 '98학년도와 '99학년도에도 2월달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홍보부족으로 중도탈락자 중 학교적응교육 신청자는 97학년 17.77%, 98학년도 16.25%, 99년도 18.42%로 나타나고 있다.⁴⁸⁾ 그러나 전국 평균인 6.5%보다는 대단히 높아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도교육청과 도광역단체가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선도 정책으로 ① 보호 및 관리 지원 정책 ② 복교 지원 정책 ③ 취업 및 진로준비 지원 정책 ④ 상담과 생활지도 지원 정책 ⑤ 비행 교정 지원 정책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중도탈락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복교 지원정책만을 연구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는 1996학년 2학기부터 '학교복교 특별기간'을 통해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제주도에서도 중도탈락 학생의 소재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제주도청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결과 <표Ⅱ-10>과 <표Ⅱ-11>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Ⅱ-10>에서 보면 최초입학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후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사

47) 전국학생수련교육연구회(1997), 「학생수련교육 - 학교적응 교육과정」, pp.221~223.

48) 제주도 도교육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로 재구성 하였음.

회에 적응하는 중도탈락생(취업자)이 31.4%, 다시 입학시험을 치르고 다른 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13.8%, 직업훈련원에 진로교육을 받는 중도탈락자 6.0%로 나타났다. 47.7%에 달하는 중도탈락자는 이미 타도로 가출이 되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위도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도탈락생들이 생활 본거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10> 제주도교육청 중도탈락생 조사 현황

| 학 교 급 별 | 재입학 | 직업 훈련 | 취 업 | 기 타 | 계 |
|---------|-----|-------|-----|-----|-----|
| 중 학 교 | 18 | 1 | 14 | 85 | 119 |
| 고 등 학 교 | 67 | 36 | 180 | 210 | 499 |
| 계 | 85 | 37 | 194 | 295 | 618 |

자료 : 제주도교육청 조사 자료('97.8.)

<표Ⅱ-11>에서 보면 취업이 18.4%, 무위도식이 18.2%, 가출 12.9%, 재입학 9.5%, 소년원 수용 4.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교육청 조사자료와 인원수에는 차이는 없으나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중도탈락생을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부모나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된 까닭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적응교육을 받고 학교에 재입학을 원하고 있는지 희망조사를 한 결과 <표Ⅱ-12> 같이 나타나게 되어 청소년 비행을 줄인다는 선도 입장에서 희망자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중학생 중도탈락자가 없는 것은 농·어촌 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정책으로 중도탈락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Ⅱ-11> 제주도청 중도탈락자 조사 현황

| 시·군별 | 계 | 취업 | 재입학 | 검정고시준비 | 기술학원 | 소년원수용 | 보호관찰중 | 가출 | 무위도식 | 가사 | 기타 |
|------|--------------|-------------|-----------|-----------|------|------------|----------|------------|-------------|-----------|-------------|
| 계 | 573 (102) | 112 (12) | 55 (2) | 29 (2) | 19 | 22 (11) | 3 (2) | 69 (18) | 104 (19) | 52 (6) | 108 (30) |
| 제주시 | 283 (64) | 41 (6) | 31 (2) | 16 (2) | 7 | 9 (4) | 2 (2) | 45 (13) | 43 (8) | 16 (4) | 73 (23) |
| 서귀포시 | 113 (38) | 17 (6) | 6 | 2 | 6 | 9 (7) | 1 | 15 (5) | 25 (11) | 9 (2) | 23 (7) |
| 북제주군 | 108 | 24 | 14 | 7 | 3 | | | 6 | 28 | 19 | 7 |
| 남제주군 | 69 | 30 | 4 | 4 | 3 | 4 | | 3 | 8 | 8 | 5 |

※()은 중학교 중도탈락자 숫자임

자료 : 제주도청 사회복지과 조사 자료(97.8.)

<표Ⅱ-12> '98학년도 중도탈락자 희망사항 현황

| 시·군별 | 계 | 학교복귀 | 직업훈련 | 취업 | 재학교육 | 기타 |
|------|----------|--------|-------|-------|------|---------|
| 계 | 573(102) | 93(21) | 66(4) | 72(7) | 1 | 341(70) |
| 제주시 | 283(64) | 34(10) | 35(3) | 35(5) | | 179(46) |
| 서귀포시 | 113(38) | 23(11) | 11(1) | 10(2) | | 69(24) |
| 북제주군 | 108 | 17 | 18 | 18 | 1 | 58 |
| 남제주군 | 69 | 19 | 9 | 9 | |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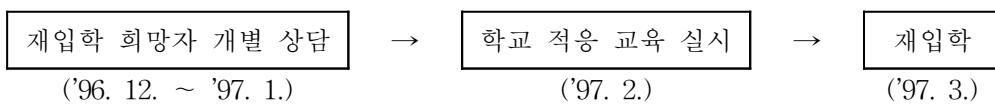
※()은 중학교 중도탈락학생의 희망사항

자료 : 제주도 교육청 중등장학과 조사 자료(97.1.)

위의 자료들에 의해서 제주도 도교육청에서는 '중장 81140-59(97. 1. 20.)'에 의해 T교육원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돌입하게 되었고, 본 연구자도 프로그램 개발에 동참하였다.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된 중도탈락자 재입학 추진 계획 세부일정을 보

면, 96년 12월~97년 1월까지 재입학 희망자를 조사하고 97년 2월중에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3박 4일 동안 투입하며 97학년 3월초에 재입학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98학년도와 99학년도에 실시된 학교적응 교육도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추진 날자만 다를 뿐이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림 II-3] 중도탈락생 재입학 과정

(3) 학교적응교육의 내용

교육대상은 중도탈락 학생 중 희망자와 학부모가 되며 여기에 따른 교육내용은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정신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⁴⁹⁾, ① 심성계발 프로그램 ② 부모참여프로그램 ③ 봉사활동 프로그램 ④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심성계발 프로그램’은 ㉠ 만남의 장 ㉡ 나는 누구인가 ㉢ 신뢰쌓기 ㉣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 우리의 멋 ㉦ 생애의 설계 ㉧ 나의 손거울 등 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 농악 ㉡ 구원이의 새해 소원 ㉢ 부모와의 대화 등이 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 영송학교(정신지체아 학교) 방문 ㉡ 영지학교(신체 및 정신지체아 학교) 방문 ㉢ 고아원 및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사랑나누기 체험을 실시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은 ㉠ 장애 요소를 넘어 ㉡ 그것이 궁금하다. 등으로 3박 4일 동안 밤 23:00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친교의 시간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루에 1~2차례 실시되며 진행과정에서 지도 교사들과 계속 상담활동이 이루어져 모든 교사가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새 삶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9) 전국학생수련교육연구회(1998), 「학생수련교육-복교학생 적응교육(탐라교육원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학부 발행, pp.214~218.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T교육원 수련담당 연구사들이 개발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학생들에게 투입하여 왔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중도탈락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감화를 주지 못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를 중도 포기한 후 옹지 못한 다양한 사회경험을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⁵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제시하여 교육에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① 지식보다는 생각을, 생각보다는 느낌을, 과거보다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② 자기의 생활모습을 냉정히 성찰할 수 있도록 각 과정별로 진행하기에 앞서 1~2분간의 묵상을 하게 한다. ③ 관념적인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유도하며, 엉뚱한 질문이나 언동을 하는 경우에도 위트나 기교로 응대해야 한다. ④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발표를 강요하지 않는다. 발표가 끝나면 격려와 박수를 보내 준다. 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등을 두드려 주는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게임을 실시하면 더욱 좋다. ⑥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⑦ 이 집단 안에서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친다. 다시말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⑧ 서툰 심리학 지식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나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말을 삼가며, 상대방을 평가·판단·분석하지 않는다.⁵¹⁾

50) 민경연(1992), “미진학 근로 청소년에 대한 참만남 집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19~21.

51) 탐라교육원(1999. 2. 8.), 「고등학교 진취력(학교적응)배양 교육 지도서 - 고교 재입학 희망자 교육」, pp.9~10.

Ⅲ. 研究 方法

제주도 중도탈락의 주 요인을 탐색하고 T교육원에서 3년 동안 실시해온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여 실제로 중도탈락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을 밝혀보고자 본 연구는 사회조사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및 표집, 측정도구 및 자료의 처리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1. 研究對象 및 標集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제주도에 28개 고등학교에서 '95~98학년도까지 중도탈락된 학생 중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250명을 상대로 하여 설문1형을 조사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50명의 중도탈락생 모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228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2형은 '97학년도와 '98학년도에 수료하여 학교에 복교한 뒤 1년 이상 생활한 인문계 고등학교 103명과 실업계 고등학교 10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와 출석부 및 징계대장을 확인하여 그중 성실하게 답한 인문계 100명, 실업계 100명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학교적응도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교육을 수료한 각 지역별 인원을 보면 제주시 지역 99명, 서귀포시 60명, 남제주군 40명, 북제주군 51명을 표집으로 하였고, 표집된 중도탈락생들을 대상으로 3개 영역으로 나누어 ① 학교탈락 이전의 생활 만족도 ② 중도탈락의 원인 ③ T교육원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문1형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설문 2형은 ④ 중도탈락생의 학교적응도를 중심으로 모두 4개 변인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집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Ⅲ-1>와 같다.

<표Ⅲ-1>

표집 분포도

| 지역구분 | 성별·학년별 | 남자 중도탈락생 | | | | 여자 중도탈락생 | | | | 합 계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
| 제주시 | | 30 | 38 | 5 | 73 | 12 | 11 | 3 | 26 | 99 |
| 서귀포 | | 10 | 24 | 12 | 46 | 5 | 8 | 1 | 14 | 60 |
| 남제주군 | | 5 | 15 | 0 | 24 | 14 | 5 | 1 | 20 | 40 |
| 북제주군 | | 12 | 15 | 5 | 32 | 13 | 4 | 2 | 19 | 51 |
| 합 계 | | 57 | 92 | 22 | 171 | 44 | 28 | 7 | 79 | 250 |

2. 測定道具

본 연구에서는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중도탈락생들이 학교에 복교하고 난 다음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투입 이후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마다 방문, 각 학교의 중도탈락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장부를 분석하여 사례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표Ⅲ-2>로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표Ⅲ-2>

측 정 도 구

| 구 분 | 연구방법 | 비 고 |
|----------------|--------------|--|
| 중도탈락전 학교생활 만족도 | 조사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교육원 교육기간 중 조사 연구 · T교육원 교육효과 사례연구 · 학교 방문하여 상담·출석부 확인 등을 사례연구 |
| 중도탈락 요인 | 조사연구 | |
|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효율성 | 조사연구 | |
| 학교적응도 | 조사연구 사례연구 | |

위 내용 중에서 척도에 의한 자료수집은 4개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99년 2월 2일부터 실시되는 T교육원에서의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얼마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월 달에 28개 제주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출석부 및 징계대장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와 만나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실로 복교학생을 불러 편안한 마음에서 상담과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척도 내용을 각 영역별로 보면 <표Ⅲ-3>과 같다.

<표Ⅲ-3> 문항 구성표

| 구 분 | 하위구성요소 | 문항수 | 문항번호 | 합 계 |
|---------------|--------------|-----|-------------|------|
| 중도탈락이전 생활 만족도 | 가정생활 만족 | 4 | 1,2,3,4, | 28문항 |
| | 학교생활 만족 | | | |
| | 친구관계 만족 | | | |
| | 지역사회관계 만족 | | | |
| 중도탈락 요인 | 가정불화 요인 | 4 | 5,6,7,8 | 28문항 |
| | 교사 요인 | | | |
| | 나쁜친구 요인 | | | |
| T교육원 프로그램 효율성 | 나자신 요인 | 4 | 9,10,11,12 | 28문항 |
| | 프로그램의 효율성 | | | |
| | 자아 정체감 형성 | | | |
| 학교적응도 |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 | 4 | 13,15,16,19 | 28문항 |
| | 복교이후 생활의 만족도 | | | |
| | 학교생활 성실성 | | | |
| | | 4 | 14,17,18,20 | |
| | | 4 | 21,22,23,24 | |
| | | 4 | 25,26,27,28 | |

3. 資料의 處理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표시하도록 하였고 각각 1,2,3,4,5의 점수를 부과하여 Likert형 척도로 조사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척도를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나타냈었으며, 성별·계열별(인문계와 실업계)은 t-test, 학년별은 F-test로 실시하였다. 또한 중도탈락이전과 중도탈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중도탈락생들이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X^2 -test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 와 $p<.01$ 로 제한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얻어진 사례연구와 자료 처리결과를 토대로 중도탈락 이전의 생활 만족도, 중도탈락 원인, 중도탈락 이전의 생활 만족도와 중도탈락과의 관계, T교육원에서의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복교 후 학교적응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中途脫落의 原因

중도탈락 이전 가정·학교·사회생활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불만족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하여 보았다. 또한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교육 신청서에서 나타난 중도탈락 이유 중 교사와 학교가 싫어서, 부모간의 불화, 나쁜 친구의 유혹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중도탈락의 원인을 규명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도탈락 이전의 생활만족도

T교육원에 제출하는 학교적응교육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중도탈락의 원인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① 학교 부적응 ② 불량교우 관계 ③ 가정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드시 한가지 원인에 의한 중도탈락은 아니었으며 최초로 심적 갈등을 갖다 준 원인을 중심으로 사례조사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된 교육부와 KEDI 연구조사에서도 학교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순으로 중도탈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항에서도 학교, 친구, 가정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중도탈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표IV-1> 중도탈락 전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성별 지각 차이

N=228

| 구 분 | 집 단 명 | N | \bar{X} | S | t |
|-------------|-------|-----|-----------|------|-------|
| 가정생활 만족 | 남 | 148 | 2.52 | 1.11 | 1.469 |
| | 여 | 80 | 2.30 | 1.02 | |
| 학교생활 만족 | 남 | 148 | 2.32 | 1.01 | 0.110 |
| | 여 | 80 | 2.30 | 1.23 | |
| 친구관계 만족 | 남 | 148 | 2.71 | 1.26 | 0.268 |
| | 여 | 80 | 2.66 | 1.26 | |
|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 남 | 148 | 2.69 | 0.69 | 1.206 |
| | 여 | 80 | 2.58 | 2.58 | |

<표IV-1>은 중도탈락생들이 중도탈락 이전에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을 갖고 있는지 남·여간의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 이들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간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균이 3.0이하로 모든 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는 중도탈락 이전의 계열별(인문계·실업계) 생활 만족도를 차이 검정한 것이다. 가정생활의 만족에 대해서는 95%($P<.0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생활 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구간의 만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에서도 95%($P<.0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말해 가정생활 만족과 친구관계 만족,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은 인문계가 실업계 보다 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업계가 불만족으로 인한 중도탈락율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

<표IV-2> 중도탈락 전 생활 만족도에 대한 계열별 지각 차이

| N=228 | | | | | |
|-------------|-------|-----|-----------|------|----------------|
| 구 분 | 집 단 명 | N | \bar{X} | S | t |
| 가정생활 만족 | 인문계 | 67 | 2.55 | 1.11 | -2.398* |
| | 실업계 | 161 | 2.18 | 1.05 | |
| 학교생활 만족 | 인문계 | 67 | 2.49 | 1.11 | 1.627 |
| | 실업계 | 161 | 2.24 | 1.08 | |
| 친구관계 만족 | 인문계 | 67 | 2.94 | 1.11 | 2.054* |
| | 실업계 | 161 | 2.59 | 1.31 | |
|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 인문계 | 67 | 2.79 | .59 | 2.198* |
| | 실업계 | 161 | 2.59 | .71 | |

<표IV-3>은 중도탈락 이전 고등학교 학년별(1,2,3학년)로 생활에 관한 만족도를 검정한 것이다. 가정생활($p<.05$)과 친구관계($p<.01$)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가정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친구관계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요시 여기고 있어 그 만족도가 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IV-3> 중도탈락 전 생활만족도에 대한 학년별 지각 차이

| N = 228 | | | | | |
|--------------|------|-----|-----------|------|--|
| 구 분 | | N | \bar{X} | S | |
| 가정생활 만족 | 1 학년 | 102 | 2.64 | 1.14 | |
| | 2 학년 | 105 | 2.23 | 1.05 | |
| | 3 학년 | 21 | 2.57 | .75 | |
| 학교생활 만족 | 1 학년 | 102 | 2.36 | 1.12 | |
| | 2 학년 | 105 | 2.27 | 1.07 | |
| | 3 학년 | 21 | 2.29 | 1.10 | |
| 친구관계 만족 | 1 학년 | 102 | 2.92 | 1.29 | |
| | 2 학년 | 105 | 2.41 | 1.20 | |
| | 3 학년 | 21 | 3.00 | 1.18 | |
| 지역사회관계 만족 | 1 학년 | 102 | 2.73 | .69 | |
| | 2 학년 | 105 | 2.55 | .69 | |
| | 3 학년 | 21 | 2.76 | .54 | |

| 구 분 | SV | SS | df | MS | F |
|----------------|-----|---------|-----|-------|----------------|
| 가정 생활 만 족 | SSB | 9.023 | 2 | 4.512 | 3.946* |
| | SSW | 257.236 | 225 | 1.143 | |
| | SST | 266.259 | 227 | | |
| 학교 생활 만 족 | SSB | .493 | 2 | .246 | .207 |
| | SSW | 268.397 | 225 | 1.193 | |
| | SST | 268.890 | 227 | | |
| 친구 관계 만 족 | SSB | 15.746 | 2 | 7.873 | 5.138** |
| | SSW | 344.763 | 225 | 1.532 | |
| | SST | 360.509 | 227 | | |
| 지역 사회 관계 만족 | SSB | 1.845 | 2 | .922 | 1.994 |
| | SSW | 104.085 | 225 | .463 | |
| | SST | 105.930 | 227 | | |

*P<.05, **P<.01



2) 중도탈락의 원인

중도탈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재 연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들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학교적응교육에 참여하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도 교사에 대한 불만, 공부가 싫어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학교문제, 부모가출 및 가정빈곤, 부모다툼의 원인이 된 가정문제, 친구간 따돌림이나 불량교우로 인한 친구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중도탈락의 원인을 ① 가정불화 원인 ② 교사의 원인 ③ 나쁜 친구 유희의 원인 ④ 자기 자신의 문제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불화

<표IV-4> 가정불화 원인에 의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N=228

| 구 | 분 | N | \bar{X} | S | t |
|---|------|-----|-----------|------|--------|
| 성 | 남 학생 | 148 | 3.35 | 1.33 | 1.945 |
| | 여 학생 | 80 | 3.03 | 1.14 | |
| 계 | 인문계 | 148 | 3.54 | 1.33 | 2.247* |
| | 실업계 | 80 | 3.11 | 1.23 | |

| 구 | 분 | N | \bar{X} | S |
|---|---|-----|-----------|------|
| 1 | 학 | 102 | 3.22 | 1.29 |
| 2 | 학 | 105 | 3.23 | 1.28 |
| 3 | 학 | 21 | 3.38 | 1.20 |
| 진 | 체 | 228 | 3.24 | 1.28 |

| 구 | 분 | SV | SS | df | MS | F |
|---|---|-----|---------|-----|-------|------|
| 학 | 년 | SSB | .489 | 2 | .244 | .149 |
| | | SSW | 368.722 | 225 | 1.639 | |
| | | SST | 369.211 | 227 | | |

*P<.05

부모간의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중단에 대해 성별·계열별·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IV-4>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계열별에서는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및 학년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불화는 자녀들에게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며 이로 인하여 고교진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나의 실패의 주요인을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부모에 대한 원망감마저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게 하여 중도탈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별과 학년별로는 평균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와의 관계

<표IV-5> 교사와의 관계로 인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N=228

| 구 | 분 | N | \bar{X} | S | t |
|---|-------|-----|-----------|------|---------------|
| 성 | 남 학생 | 148 | 3.56 | 1.26 | 2.106* |
| | 여 학생 | 80 | 3.19 | 1.30 | |
| 계 | 인 문 계 | 67 | 3.52 | 1.13 | .751 |
| | 실 업 계 | 161 | 3.39 | 1.23 | |

| 구 | 분 | N | \bar{X} | S |
|---|------|-----|-----------|------|
| | 1 학년 | 102 | 3.40 | 1.36 |
| | 2 학년 | 105 | 3.50 | 1.25 |
| | 3 학년 | 21 | 3.24 | 1.14 |
| | 전 체 | 228 | 3.43 | 1.29 |

| 구 | 분 | SV | SS | df | MS | F | |
|---|---|----|-----|---------|-----|-------|------|
| 학 | 년 | 별 | SSB | 1.300 | 2 | .650 | .391 |
| | | | SSW | 374.577 | 225 | 1.665 | |
| | | | SST | 375.877 | 227 | | |

*P<.05

<표IV-5>는 교사의 체벌 및 낙인으로 인하여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성별·계열별·학년별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녀 별은 유의한 차이(p<.05)가 있으나 계열별,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에 대한 반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체벌에 대한 모욕감을 남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 교사의 원인에 의한 중도탈락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열별 및 학년별로 교사의 원인에 의한 중도탈락은 평균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나쁜 친구의 유혹

<표IV-6> 나쁜 친구의 유혹에 의한 중도탈락 지각의 차이

N=228

| 구 | 분 | N | \bar{X} | S | t |
|---|------|-----|-----------|------|---------------|
| 성 | 남 학생 | 148 | 3.50 | 1.00 | 2.198* |
| | 여 학생 | 80 | 3.18 | 1.18 | |
| 계 | 인문계 | 67 | 3.25 | 1.05 | -1.200 |
| | 실업계 | 161 | 3.44 | 1.08 | |

| 구 | 분 | N | \bar{X} | S |
|---|-----|-----|-----------|------|
| | 1학년 | 102 | 3.30 | 1.18 |
| | 2학년 | 105 | 3.49 | 1.00 |
| | 3학년 | 21 | 3.29 | .90 |
| | 전체 | 228 | 3.39 | 1.07 |

| 구 | 분 | SV | SS | df | MS | F | |
|---|---|----|-----|---------|-----|-------|------|
| 학 | 년 | 별 | SSB | 1.942 | 2 | .971 | .840 |
| | | | SSW | 260.093 | 225 | 1.156 | |
| | | | SST | 262.035 | 227 | | |

*P<.05

<표IV-6>은 나쁜 친구의 유혹에 의한 중도탈락의 원인을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 검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별은 유의한 차이(p<.05)를 보이고 있으나 계열별 및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나쁜 친구에 의한 중도탈락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다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워 갈등을 느끼는 여학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나쁜 친구로 인한 중도탈락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4) 자기 자신의 문제

<표IV-7>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의 지각의 차이

| N=228 | | | | | |
|-------|-------|-----|-----------|------|------|
| 구 | 분 | N | \bar{X} | S | t |
| 성 별 | 남 학생 | 148 | 3.30 | 1.13 | .702 |
| | 여 학생 | 80 | 3.19 | 1.13 | |
| 계 열 별 | 인 문 계 | 67 | 3.33 | .98 | .651 |
| | 실 업 계 | 161 | 3.23 | 1.18 | |

| 구 | 분 | N | \bar{X} | S |
|-------|------|-----|-----------|------|
| 학 년 별 | 1 학년 | 102 | 3.24 | 1.14 |
| | 2 학년 | 105 | 3.31 | 1.15 |
| | 3 학년 | 21 | 3.10 | .94 |
| | 전 체 | 228 | 3.26 | 1.13 |

| 구 분 | SV | SS | df | MS | F |
|-------|-----|---------|-----|-------|------|
| 학 년 별 | SSB | .941 | 2 | .471 | .369 |
| | SSW | 286.791 | 225 | 1.275 | |
| | SST | 287.732 | 227 | | |

<표IV-7>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탈락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대한 성별·계열별·학년별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별·계열별·학년별 중도탈락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생각은 평균간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 생활의 만족도와 중도탈락 원인 간의 관계

앞에서 중도탈락 이전 나의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열별에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불만족이 심하여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불만족과 중도탈락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사전에 불만족 형태를 발견하는 즉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치료해 간다면

중도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생활의 불만족과 중도탈락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8>은 제주도 고교생들의 생활 만족과 중도탈락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은 모두 $p < .05$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부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8> 생활의 만족도와 중도탈락과의 상관관계

N = 228

| 구 분 | | 중도탈락하게 된 이유 | | | |
|----------------|------|-------------|------------|--------------|---------------|
| | | 가정불화 | 교 사 때 문 | 나쁜 친구 만 남 | 자기 자신의 문 제 |
| 중도탈락전 만 족 도 | 가정생활 | -.373* | .030 | -.167* | .075 |
| | 학교생활 | .061 | -.382* | -.069 | .027 |
| | 친구관계 | .073 | -.209* | -.371* | -.049 |
| | 자기자신 | .015 | .017 | -.139* | .015 |

*P<.05



(1) 가정불화 원인과 나쁜 친구의 유혹으로 인한 중도탈락과 가정생활의 만족 관계는 부적(반비례)관계($p < .05$)이다. 부모간의 가정불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쁜 친구와 쉽게 접근하게 되며 이는 가정의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예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불화는 중도탈락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2) 교사의 원인으로 인한 중도탈락은 학교의 만족과 부적관계($p < .05$)이다. 교육적인 차별이 아닌 감정에 치우친 차별은 교육의 역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한번 실수로 문제 있는 학생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교사의 잘못된 곧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나쁜 친구의 유혹으로 인한 중도탈락과 친구에 대한 만족도 관계는 서로 부적 상관관계($p < .05$)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나쁜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후회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

에 대한 불만족은 교사의 원인으로 인한 중도탈락과도 부적 상관관계($p < .05$)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친구간 따돌림이나 나쁜 친구의 유혹이 있을 때 교사가 개입을 하여 해결해 주기를 바랐으나 교사가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교사에게 예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자기 자신에 문제가 있어 중도탈락한 것과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자신의 만족과 나쁜 친구 만남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쁜 친구를 만나 중도 탈락하게 된 것이 내 자신에게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량청소년과 어울려 중도탈락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學校適應教育의 效果

T교육원에서 실시한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은 ① 심성계발 프로그램 8종, ② 부모 참여 프로그램 3종, ③ 봉사활동 프로그램 3종, ④ 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는 올바른 성 의식, 자기 존중감과 자아정체감 확대, 가족과의 관계개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T교육원에서는 노력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도 4종의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여 자아정체감과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자아정체감으로는 더불어 사는 지혜, 이타적인 삶, 참된 나 발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사와의 관계, 복교 후 졸업 의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등교,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적응 프로그램 투입의 효과

학교적응 교육은 3박 4일 동안 지도교사와 함께 합숙을 하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중도탈락 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 경험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 심성개발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지체 부자유 학생들이 다니는 영송·영지 학교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올바른 성의식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집단 활동 및 현장체험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기 실망을 뛰어넘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내면에서부터 유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9>은 T교육원에서 투입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학년별로만 유의한 차이($P<.01$)가 있을 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에 복교하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봉사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표본의 평균치(\bar{X})가 만족(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다.

<표IV-9>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각 차이

| 구 분 | 성 별 | N | \bar{X} | S | t |
|-----------|-----|-----|-----------|-----|--------|
| 심성개발 프로그램 | 남 | 148 | 4.26 | .81 | .272 |
| | 여 | 80 | 4.22 | .90 | |
| 부모참여 프로그램 | 남 | 148 | 4.41 | .90 | .885 |
| | 여 | 80 | 4.30 | .95 | |
| 봉사활동 프로그램 | 남 | 148 | 4.50 | .69 | .489 |
| | 여 | 80 | 4.45 | .81 | |
| 성 교육 프로그램 | 남 | 148 | 4.01 | .80 | -1.012 |
| | 여 | 80 | 4.13 | .86 | |

| 구 분 | 계열별 | N | \bar{X} | S | t |
|-----------|-----|-----|-----------|-----|--------|
| 심성개발 프로그램 | 인문계 | 67 | 4.28 | .79 | .439 |
| | 실업계 | 161 | 4.23 | .86 | |
| 부모참여 프로그램 | 인문계 | 67 | 4.31 | .92 | -.628 |
| | 실업계 | 161 | 4.40 | .91 | |
| 봉사활동 프로그램 | 인문계 | 67 | 4.40 | .74 | -1.052 |
| | 실업계 | 161 | 4.52 | .73 | |
| 성 교육 프로그램 | 인문계 | 67 | 4.04 | .73 | -.041 |
| | 실업계 | 161 | 4.05 | .86 | |

| 구 분 | 학 년 | N | \bar{X} | S |
|-----------|------|-----|-----------|------|
| 심성개발 프로그램 | 1 학년 | 102 | 4.16 | .84 |
| | 2 학년 | 105 | 4.31 | .89 |
| | 3 학년 | 21 | 4.33 | .48 |
| 부모참여 프로그램 | 1 학년 | 102 | 4.24 | 1.03 |
| | 2 학년 | 105 | 4.52 | .81 |
| | 3 학년 | 21 | 4.29 | .72 |
| 봉사활동 프로그램 | 1 학년 | 102 | 4.29 | .80 |
| | 2 학년 | 105 | 4.66 | .62 |
| | 3 학년 | 21 | 4.52 | .75 |
| 성 교육 프로그램 | 1 학년 | 102 | 4.05 | .94 |
| | 2 학년 | 105 | 4.05 | .70 |
| | 3 학년 | 21 | 4.05 | .86 |

| 구 분 | SV | SS | df | MS | F |
|-----------|-----|---------|-----|-------|----------------|
| 심성개발 프로그램 | SSB | 1.460 | 2 | .730 | 1.035 |
| | SSW | 158.785 | 225 | .706 | |
| | SST | 169.246 | 227 | | |
| 부모참여 프로그램 | SSB | 4.482 | 2 | 2.241 | 2.728 |
| | SSW | 184.829 | 225 | .821 | |
| | SST | 189.311 | 227 | | |
| 봉사활동 프로그램 | SSB | 6.858 | 2 | 3.429 | 6.647** |
| | SSW | 116.072 | 225 | .516 | |
| | SST | 122.930 | 227 | | |
| 성 교육 프로그램 | SSB | 0.011 | 2 | .055 | .000 |
| | SSW | 154.469 | 225 | .687 | |
| | SST | 154.480 | 227 | | |

**P<.01

2) 프로그램 투입 후 자아정체감 형성 효과

중도탈락생들은 타학생에 비해 인내력이 부족하고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아는 물론 타아도 인식을 못하는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T교육원에서는 그들의 자아정체감을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해 ① 더불어 사는 지혜, ② 이타적인 삶, ③ 참된 나 발견, ④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투입 후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조사 연구하여 보았다.

<표Ⅳ-10> 자아정체감의 효과에 대한 지각의 차이

| 구 분 | 성 별 | N | S | \bar{X} | t |
|-----------|-----|-----|-----|-----------|---------|
| 더불어 사는 지혜 | 남 | 148 | .64 | 3.95 | -1.021 |
| | 여 | 80 | .66 | 4.04 | |
| 이타적인 삶 | 남 | 148 | .59 | 4.05 | -2.559* |
| | 여 | 80 | .67 | 4.28 | |
| 참된 나 발견 | 남 | 148 | .76 | 4.18 | -1.950 |
| | 여 | 80 | .79 | 4.39 | |
| 할수있다는 자신감 | 남 | 148 | .76 | 4.42 | -.414 |
| | 여 | 80 | .76 | 4.46 | |

| 구 분 | 계열별 | N | \bar{X} | S | t |
|-----------|-----|-----|-----------|-----|---------|
| 더불어 사는 지혜 | 인문계 | 67 | 3.97 | .55 | -.130 |
| | 실업계 | 161 | 3.98 | .68 | |
| 이타적인 삶 | 인문계 | 67 | 3.99 | .54 | -2.485* |
| | 실업계 | 161 | 4.19 | .66 | |
| 참된 나 발견 | 인문계 | 67 | 4.22 | .69 | -.384 |
| | 실업계 | 161 | 4.27 | .80 | |
| 할수있다는 자신감 | 인문계 | 67 | 4.37 | .81 | -.785 |
| | 실업계 | 161 | 4.46 | .73 | |

| 구 분 | 학년별 | N | \bar{X} | S |
|-----------|------|-----|-----------|-----|
| 더불어사는 지혜 | 1 학년 | 102 | 3.94 | .70 |
| | 2 학년 | 105 | 4.06 | .57 |
| | 3 학년 | 21 | 3.76 | .70 |
| 이타적인 삶 | 1 학년 | 102 | 4.10 | .67 |
| | 2 학년 | 105 | 4.17 | .63 |
| | 3 학년 | 21 | 4.10 | .44 |
| 참된 나 발견 | 1 학년 | 102 | 4.17 | .83 |
| | 2 학년 | 105 | 4.37 | .72 |
| | 3 학년 | 21 | 4.10 | .62 |
| 할수있다는 자신감 | 1 학년 | 102 | 4.27 | .77 |
| | 2 학년 | 105 | 4.61 | .71 |
| | 3 학년 | 21 | 4.33 | .73 |

| 구 분 | SV | SS | df | MS | F |
|-----------|-----|---------|-----|-------|---------|
| 더불어 사는 지혜 | SSB | 1.777 | 2 | .888 | 2.147 |
| | SSW | 93.114 | 225 | .414 | |
| | SST | 94.890 | 227 | | |
| 이타적인 삶 | SSB | .309 | 2 | .155 | .388 |
| | SSW | 89.743 | 225 | .399 | |
| | SST | 90.053 | 227 | | |
| 참된 나 발견 | SSB | 2.755 | 2 | 1.378 | 2.339 |
| | SSW | 132.490 | 225 | .589 | |
| | SST | 135.246 | 227 | | |
| 할수있다는 자신감 | SSB | 6.042 | 2 | 3.021 | 5.483** |
| | SSW | 123.971 | 225 | .551 | |
| | SST | 130.013 | 227 | | |

*P<.05 **P<.01

자아정체감에 대한 성별·계열별·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과 계열별에서는 ‘이타적인 삶’에만 유의한 차이(P<.05)가 있으며, 학년별로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에만 유의한 차이(P<.01)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이타적인 삶의 자신감은 남자(\bar{X} =4.05)보다 여자(\bar{X} =4.28)가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은 인문계(\bar{X} =3.99)보다 실업계(\bar{X} =4.19)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녀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업계에 대한 학교시설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계열별 학교 평준화에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3)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의 목적은 자아정체감을 인식시켜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① 좋은 친구 사귀, ② 교사에 대한 존경심, ③ 복교 후 반드시 졸업하겠다는 의지, ④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등교하고 싶다는 네가지 반응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IV-11>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 지각의 차이

| 구 분 | 성 별 | N | \bar{X} | S | t |
|----------------|-----|-----|-----------|------|--------|
| 좋은 친구 사귀 | 남 | 148 | 3.93 | .81 | -1.138 |
| | 여 | 80 | 4.05 | .74 | |
| 교사 존경 | 남 | 148 | 3.22 | 1.14 | -.372 |
| | 여 | 80 | 3.28 | 1.14 | |
| 복교 후 반드시 졸업 | 남 | 148 | 4.42 | .75 | 1.966* |
| | 여 | 80 | 4.21 | .77 | |
| 즐거움 마음으로 학교 등교 | 남 | 148 | 4.14 | .73 | .542 |
| | 여 | 80 | 4.08 | .96 | |

| 구 분 | 계열별 | N | \bar{X} | S | t |
|----------------|-----|-----|-----------|------|--------|
| 좋은 친구 사귀 | 인문계 | 67 | 3.81 | .82 | -2.034 |
| | 실업계 | 161 | 4.04 | .77 | |
| 교사 존경 | 인문계 | 67 | 3.13 | 1.19 | -.878 |
| | 실업계 | 161 | 3.28 | 1.11 | |
| 복교 후 반드시 졸업 | 인문계 | 67 | 4.37 | .69 | .340 |
| | 실업계 | 161 | 4.34 | .79 | |
|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등교 | 인문계 | 67 | 4.03 | .70 | -1.152 |
| | 실업계 | 161 | 4.16 | .86 | |

| 구 분 | 학년별 | N | \bar{X} | S |
|----------------|------|-----|-----------|------|
| 좋은친구 사귀 | 1 학년 | 102 | 3.96 | .76 |
| | 2 학년 | 105 | 4.04 | .77 |
| | 3 학년 | 21 | 3.67 | .97 |
| 교사 존경 | 1 학년 | 102 | 3.25 | 1.10 |
| | 2 학년 | 105 | 3.16 | 1.19 |
| | 3 학년 | 21 | 3.52 | 1.08 |
| 복교후 반드시 졸업 | 1 학년 | 102 | 4.24 | .85 |
| | 2 학년 | 105 | 4.40 | .70 |
| | 3 학년 | 21 | 4.62 | .50 |
|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등교 | 1 학년 | 102 | 4.10 | .83 |
| | 2 학년 | 105 | 4.09 | .81 |
| | 3 학년 | 21 | 4.38 | .80 |

| 구 분 | SV | SS | df | MS | F |
|----------------|-----|---------|-----|-------|-------|
| 좋은 친구 사귀 | SSB | 2.428 | 2 | 1.214 | 1.974 |
| | SSW | 138.357 | 225 | .615 | |
| | SST | 140.785 | 227 | | |
| 교사 존경 | SSB | 2.352 | 2 | 1.176 | .910 |
| | SSW | 290.858 | 225 | 1.293 | |
| | SST | 293.211 | 227 | | |
| 복교 후 반드시 졸업 | SSB | 3.122 | 2 | 1.561 | 2.733 |
| | SSW | 128.505 | 225 | .571 | |
| | SST | 131.627 | 227 | | |
|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등교 | SSB | 1.602 | 2 | .801 | 1.200 |
| | SSW | 150.201 | 225 | .668 | |
| | SST | 151.803 | 227 | | |

*P<.05

T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이 투입 된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계열별·학년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남·녀별에서 '복교후 반드시 졸업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P<.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졸업할 의욕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표준평균(\bar{X})을 보면 대부분 높게(4.0 이상) 나타나고 있어 T교육원에서의 학교적응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예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인식은 표본평균(\bar{X})이 3.0~3.5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복교 후 학교에서 교사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3. 復校 後 學校適應度

T교육원에서 97학년도와 98학년도 2월 달에 학교적응교육을 수료하고 학교에 복교하여 1년 이상 생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①학교복교 후 관계개선 ②복교 후 학교적응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학교 복교 후 대인관계 개선에서는 친구와의 관계개선, 교사와의 관계개선, 부모와의 관계개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복교 후 학교적응도는 무단결석 상황, 가출, 징계 상황 등을 출석부와 징계대장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여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학교생활에서의 봉사활동은 1년에 20시간 이상 실시해야만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약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복교 후 대인관계의 개선

중도탈락생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성에 대해 잘못 알고, 호기심이 많으며 충동 조절이 미흡하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고,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언어구사력도 부족하다. 자신의 느낌이나 성격표현에 있어서도 부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어 친구들에게는 따돌림을, 교사들에게는 낙인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이 즐겁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적응교육을 받고난 이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00년경 Karl Pearson에 의해 개발된 X^2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차이검정을 하였으며 사례수와 비율을 중심으로 df(자유도)에 의해 산출된 값에 따라 임계치를 참조하여 연구되었다.

(1) 친구와의 관계

<표IV-12>는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 교육을 수료하고 학교에 복교하여 생활하면서 나타난 친구관계를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복교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해하는 학생(83명, 41.5%)이 불만을 느끼는 학생(43명, 21.5%)보다 많은 편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이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는 편보다 만족하는 편이 대체로 많고, 실업계의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 혹은 불만족의 응답이 많은 편이다.

이는 인문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여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량 청소년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생이 주변에 많음도 여기에 기인하며, 학업이나 가정에서도 인문계 학생보다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 친구유혹에도 쉽게 접근하고 있다.

<표IV-12>

친구관계 지각의 차이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그저 그렇다 | 만족 | 매우 만족 | 계 | df | χ^2 | |
|--------|----------|----------|----------|----------|----------|------------|------------|----------|----------|
| 성별 | 남학생 | 16(10.5) | 17(11.2) | 49(32.2) | 43(28.3) | 27(17.8) | 152(100.0) | 4 | 7.067 |
| | 여학생 | 5(10.4) | 5(10.4) | 25(52.1) | 8(16.7) | 5(10.4) | 48(100.0) | | |
| 계열별 | 인문계 | 8(8.0) | 9(9.0) | 25(25.0) | 34(34.0) | 24(24.0) | 100(100.0) | 4 | 23.368** |
| | 실업계 | 13(13.0) | 13(13.0) | 49(49.0) | 17(17.0) | 8(8.0) | 100(100.0) | | |
| 학년별 | 1학년 | 6(8.6) | 5(7.1) | 31(44.3) | 17(24.3) | 11(15.7) | 70(100.0) | 8 | 6.218 |
| | 2학년 | 12(11.3) | 14(13.2) | 36(34.0) | 25(23.6) | 19(17.9) | 106(100.0) | | |
| | 3학년 | 3(12.5) | 3(12.5) | 7(29.2) | 9(37.5) | 2(8.3) | 24(100.0) | | |
| 전체명(%) | 21(10.5) | 22(11.0) | 74(37.0) | 51(25.5) | 32(16.0) | 200(100.0) | | | |

**P<.01

(2) 교사와의 관계

<표IV-13>는 학교적응 교육을 수료하고 복교한 이후에 나타난 교사관계 개선을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복교 후 교사관계에서 만족(85명, 42.5%)이 불만족(50명, 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계열별과 학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남·녀별로는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즉, 남학생(38.8%)보다 여학생(54.2%)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계열별과 학년별에서는 평균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보다 만족을 느끼고 있어 그런데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 상처를 받은 학생들을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 새삶을 주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도 영향이 있으며 모든 교사들이 체벌보다는 상담을 먼저 실시하여 타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IV-13>

교사와의 관계 지각의 차이

| 구 | 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그저 그렇다 | 만족 | 매우 만족 | 계 | df | χ^2 |
|---------|-----|-----------|----------|-----------|----------|----------|------------|----|----------|
| 성별 | 남학생 | 12(7.9) | 32(21.1) | 49(32.2) | 48(31.6) | 11(7.2) | 152(100.0) | 4 | 12.521* |
| | 여학생 | 2(4.2) | 4(8.3) | 16(33.3) | 26(54.2) | 0(0.0) | 48(100.0) | | |
| 계열별 | 인문계 | 6(6.0) | 18(18.0) | 30(30.0) | 38(38.0) | 8(8.0) | 100(100.0) | 4 | 2.997 |
| | 실업계 | 8(8.0) | 18(18.0) | 35(35.0) | 36(36.0) | 3(3.0) | 100(100.0) | | |
| 학년별 | 1학년 | 5(7.1) | 15(21.4) | 21(30.0) | 28(40.0) | 1(1.4) | 70(100.0) | 8 | 7.274 |
| | 2학년 | 8(7.5) | 19(17.9) | 34(32.1) | 36(34.0) | 9(8.5) | 106(100.0) | | |
| | 3학년 | 1(4.2) | 2(8.3) | 10(41.7) | 10(41.7) | 1(4.2) | 24(100.0) | | |
| 전체명 (%) | | 14(7.0) | 36(18.0) | 65(32.5) | 74(37.0) | 11(5.5) | 200(100.0) | | |

*P<.05

(3) 부모와의 관계

<표IV-14>은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 교육을 수료하고 복교하여 생활하면서 나타난 부모와의 관계를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족(8.0%) 보다 만족(72.5%)이 많음을 알 수 있다. T교육원이 프로그램 투입후 ‘부모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설문 결과도 70.2%가 매우 유익했다고 답하고 있어 T교육원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학년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P<.05)과 계열별(P<.01)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을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만족 반응도가 높으며, 계열별은 실업계보다 인문계가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대한 만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들이 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계가 인문계 보다 가정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인문계 선호 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IV-14>

부모와의 관계 지각의 차이

| 구 | 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그 저 그렇다 | 만족 | 매우 만족 | 계 | df | χ^2 |
|-----------|-----|-----------|----------|---------------|----------|----------|------------|----|----------|
| 성 | 남학생 | 1(0.7) | 14(9.2) | 26(17.1) | 68(44.7) | 43(28.3) | 152(100.0) | 4 | 11.354* |
| | 여학생 | | 1(2.1) | 13(27.1) | 29(60.4) | 5(10.4) | 48(100.0) | | |
| 계열별 | 인문계 | 1(1.0) | 5(5.0) | 13(13.0) | 48(48.0) | 33(33.0) | 100(100.0) | 4 | 13.760** |
| | 실업계 | | 10(10.0) | 26(26.0) | 49(49.0) | 15(15.0) | 100(100.0) | | |
| 학년별 | 1학년 | | 6(8.6) | 15(21.4) | 36(51.4) | 13(18.6) | 70(100.0) | 8 | 8.355 |
| | 2학년 | 1(0.9) | 9(8.5) | 20(18.9) | 45(42.5) | 31(29.2) | 106(100.0) | | |
| | 3학년 | | | 4(16.7) | 16(66.7) | 4(16.7) | 24(100.0) | | |
| 전 체 명 (%) | | 1(0.5) | 15(7.5) | 39(19.5) | 97(48.5) | 48(24.0) | 200(100.0) | | |

*P<.05, **P<.01

2) 복교 후 학교적응도



T교육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의 효과와 자아정체감 및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상담, 출석부와 징계대장을 가지고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① 봉사활동 상황 ② 무단결석 상황 ③ 가출상황 ④ 징계 상황 등을 중심으로 복교 후 학교 적응도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상황

<표IV-15>는 복교 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남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봉사활동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족 14.5%, 그저 그렇다 35.0%, 만족 50.5%로 나타나고 있어 T교육원에서의 영송학교(정신지체아 학교)와 영지학교(신체 지체아 학교)를 찾아 봉

사활동을 실시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교육원 설문조사에서도 95.5%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어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한 느낌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 영향이 복교 후 학교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계열별·학년별에서도 50% 이상이 봉사활동에 년 3회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V-15> 봉사활동에 대한 상황의 차이

| 구 분 | 매 우 불만족 (전혀없음) | 불만족 (마음도 없음) | 그 저 그렇다 (타인에 의함) | 만 족 (3회이하) | 매우 만족 (4회이상) | 계 | df | χ^2 | |
|-----------|-------------------|-----------------|---------------------|---------------|-----------------|------------|------------|----------|-------|
| 성 별 | 남학생 | 2(1.3) | 22(14.5) | 52(34.2) | 57(37.5) | 19(12.5) | 152(100.0) | 4 | 1.231 |
| | 여학생 | | 5(10.4) | 18(37.5) | 19(39.6) | 6(12.5) | 48(100.0) | | |
| 계열별 | 인문계 | 2(2.0) | 13(13.0) | 36(36.0) | 37(37.0) | 12(12.0) | 100(100.0) | 4 | 2.187 |
| | 실업계 | | 14(14.0) | 34(34.0) | 39(39.0) | 13(13.0) | 100(100.0) | | |
| 학년별 | 1학년 | | 9(12.9) | 25(35.7) | 29(41.4) | 7(10.0) | 70(100.0) | 8 | 5.593 |
| | 2학년 | 2(1.9) | 15(14.2) | 35(33.0) | 37(34.9) | 17(16.0) | 106(100.0) | | |
| | 3학년 | | 3(12.5) | 10(41.7) | 10(41.7) | 1(4.2) | 24(100.0) | | |
| 전 체 명 (%) | 2(1.0) | 27(13.5) | 70(35.0) | 76(38.0) | 25(12.5) | 200(100.0) | | | |

(2) 복교 후 출결 상황

<표IV-16>은 28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복교생들의 출석부를 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을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5일 이상 무단 결석자 16% 보다 14일 이하 무단 결석자가 84%로 출석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결석일을 15일로 척도를 정한 것은 읍면지구 일반계 고등학교 복교생이 소속된 학급의 평균 무단결석일수가 9.8일, 실업계 고등학교 복교생이 소속된 학급의 평균 무단결석일수는 13.6일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 15일 미만의 무단

결석 일수는 일반 학생들의 출석율과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복교생들의 복교 후 1학기 동안 학교생활은 성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열별과 학년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IV-16> 1학기동안 무단결석 인식의 차이

| 구 분 | 30일 이상 | 15~29일 | 8~14일 | 0~7일 | 계 | df | χ^2 | |
|----------|--------|----------|-----------|----------|----------|----------|----------|-------|
| 성 별 | 남학생 | 4(2.6) | 19(12.5) | 73(48.0) | 56(36.8) | 152(100) | 3 | 2.511 |
| | 여학생 | 1(2.1) | 8(16.7) | 27(56.3) | 12(25.0) | 48(100) | | |
| 계열별 | 인문계 | 3(3.0) | 11(11.0) | 55(55.0) | 31(31.0) | 100(100) | 3 | 2.655 |
| | 실업계 | 2(2.0) | 16(16.0) | 45(45.0) | 37(37.0) | 100(100) | | |
| 학년별 | 1학년 | 1(1.4) | 10(14.3) | 36(51.4) | 23(32.9) | 70(100) | 6 | 2.792 |
| | 2학년 | 4(3.8) | 13(12.3) | 54(50.9) | 35(33.0) | 106(100) | | |
| | 3학년 | | 4(16.7) | 10(41.7) | 10(41.7) | 24(100) | | |
| 전 체 명(%) | 5(2.5) | 27(13.5) | 100(50.0) | 68(34.0) | 200(100) | | | |

<표IV-17>는 28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 교육을 수료하고 복교하여 2학기동안 생활하면서 나타난 무단결석일수를 출석부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열별($P<.05$)과 학년별($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은 인문계(81%) 보다 실업계(90%) 복교학생이 무단결석(15일 이상)이 많아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려고 해도 학교 미등교 및 가출로 인하여 불량 청소년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재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70.8%, 2학년 88.7%, 1학년 85.7%로 15일 이상 무단결석자가 2학년-1학년-3학년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3학년은 1년만 어떻게든 참아 줄

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1·2학년은 졸업일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이미 사회생활 경험을 갖고 있어 쉽게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학기 동안은 15일 이상 무단결석자가 16%인데 반해 2학기는 75.5%로 증가하고 있어 복교생들에게 여름방학동안 학교자체 프로그램에 의하든 아니면 T교육원에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든, 재투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IV-17> 2학기동안 무단결석 인식의 차이

| 구 분 | 30일 이상 | 15~29일 | 8~14일 | 0~7일 | 계 | df | χ^2 |
|-----------|--|---------------------------------|-------------------------------|------------------------------|----------------------|----|----------|
| 성 별 | 남학생 86(56.6) 여학생 34(70.8) | 42(27.6) 9(18.8) | 20(13.2) 3(6.3) | 4(2.6) 2(4.2) | 152(100) 48(100) | 3 | 4.164 |
| 계열별 | 인문계 51(51.0) 실업계 69(69.0) | 30(30.0) 21(21.0) | 16(16.0) 7(7.0) | 3(3.0) 3(3.0) | 100(100) 100(100) | 3 | 7.810* |
| 학년별 | 1학년 41(58.6) 2학년 65(61.3) 3학년 14(58.3) | 19(27.1) 29(27.4) 3(12.5) | 10(14.3) 9(8.5) 4(16.7) | 70(100) 3(2.8) 3(12.5) | 106(100) 24(100) | 6 | 13.068* |
| 전 체 명 (%) | 120(60.0) | 51(25.5) | 23(11.5) | 6(3.0) | 200(100) | | |

*P<.05

(3) 가출 상황

<표IV-18>은 28개 제주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복교생을 상담하여 사례조사된 내용을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명 중 100명(50%)이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²⁾ 79명(39.5%)은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었다. 또한 21명(10.5%)은 아주 성실하게 가정과 학교생활을 하는 반면 부모와 대화가 잘 되어 서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성별·계열별·학년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52) 100명중 1학기 23명, 2학기 77명이 가출 경험을 함(징계대장 및 담임과의 상담 결과)

로 나타나고 있어 표본 평균간의 차이가 없다고 예기 할 수가 있다.

<표IV-18>

가출 상황의 차이

| 구 | 분 | 매우불량 (3회이상) | 불량 (2회) | 보통 (1회) | 성실 (충동느낌) | 매우성실 (전혀없음) | 계 | df | χ^2 |
|--------|-----|----------------|------------|------------|--------------|----------------|----------|----|----------|
| 성별 | 남학생 | 2(1.3) | 29(19.1) | 38(25.0) | 63(41.4) | 20(13.2) | 152(100) | 4 | 9.333 |
| | 여학생 | | 16(33.3) | 15(31.3) | 16(33.3) | 1(2.1) | 48(100) | | |
| 계열별 | 인문계 | 1(1.0) | 17(17.0) | 24(24.0) | 42(42.0) | 16(16.0) | 100(100) | 4 | 9.239 |
| | 실업계 | 1(1.0) | 28(28.0) | 29(29.0) | 37(37.0) | 5(5.0) | 100(100) | | |
| 학년별 | 1학년 | 2(2.9) | 16(22.9) | 15(21.4) | 31(44.3) | 6(8.6) | 70(100) | 8 | 7.949 |
| | 2학년 | | 25(23.6) | 32(30.2) | 36(34.0) | 13(12.3) | 106(100) | | |
| | 3학년 | | 4(16.7) | 6(25.0) | 12(50.0) | 2(8.3) | 24(100) | | |
| 전체명(%) | | 2(1.0) | 45(22.5) | 53(26.5) | 79(39.5) | 21(10.5) | 200(100) | | |



(4) 징계 상황

<표IV-19>는 가출 상황과 마찬가지로 징계대장을 보고 사례조사 결과를 성별·계열별·학년별로 차이를 검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경험이 있는 학생은 95명(47.5%), 105명(52.5%)은 성실한 학생으로 징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별 특징을 보면 성별($P<.01$)과 계열별($P<.01$)은 유의미한 차이(99%)가 있으나,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남학생이 54.6%, 여학생은 25%가 징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생활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나 ‘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계열별로는 징계경험 정도가 인문계 학생이 44%, 실업계 학생은 51%로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 복교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문계 보다 실업계 고교에서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이 많다고 예기할 수 있다.

<표IV-19>

징계 상황의 차이

| 구 | 분 | 매우불량 (3회이상) | 불량 (2회) | 보통 (1회) | 성실 (교칙위반, 징계없음) | 매우성실 (전혀없음) | 계 | df | χ^2 |
|--------|-----|----------------|------------|------------|-----------------------|----------------|----------|----|----------|
| 성 | 남학생 | 2(1.3) | 39(25.7) | 42(27.6) | 52(34.2) | 17(11.2) | 152(100) | 4 | 14.214** |
| | 여학생 | | 5(10.4) | 7(14.6) | 24(50.0) | 12(25.0) | 48(100) | | |
| 계열별 | 인문계 | | 12(12.0) | 32(32.0) | 42(42.0) | 14(14.0) | 100(100) | 4 | 16.559** |
| | 실업계 | 2(2.0) | 32(32.0) | 17(17.0) | 34(34.0) | 15(15.0) | 100(100) | | |
| 학년별 | 1학년 | 2(2.9) | 18(25.7) | 15(21.4) | 27(38.6) | 8(11.4) | 70(100) | 8 | 8.113 |
| | 2학년 | | 19(17.9) | 30(28.3) | 39(36.8) | 18(17.0) | 106(100) | | |
| | 3학년 | | 7(29.2) | 4(16.7) | 10(41.7) | 3(12.5) | 24(100) | | |
| 전체명(%) | | 2(1.0) | 44(22.0) | 49(24.5) | 76(38.0) | 29(14.5) | 200(100) | | |

**P<.01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학생들이 중도탈락예방과 복교 및 그 후의 적응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에서 지원 정책 및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교육을 위해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T교육원에서 투입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료후 학교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도탈락의 원인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T교육원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은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복교생들이 ‘자아정체감’과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에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셋째, 중도탈락생들이 복교이후 1학기와 2학기 무단결석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가출 및 징계상황도 학생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도탈락 이전의 생활의 만족도와 중도탈락과의 관계,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의 효과를 성별(남·여), 계열별(인문계, 실업계), 학년별(1,2,3학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에 참여한 25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에서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228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적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개 하위영역으로 각각 5~6개 문항인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SPSS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도탈락 이전의 생활 만족도와 중도탈락과의 관계를 보면,

(1) 중도탈락되기 이전의 생활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계열별에는

가정생활, 친구관계, 지역사회관계 만족도만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 차이 검정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에서 95%신뢰수준($P<.05$)에서, 친구관계 만족은 99%신뢰수준($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학교생활만족과 지역사회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도탈락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 가정불화의 원인은 계열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P<.05$)가 있었으며, 교사의 원인은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다. 그리고 나쁜 친구의 유혹에 의한 차이검정에서는 성별에서만($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도탈락이전의 생활 만족도와 중도탈락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교육원에서 실시된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성별, 계열별, 학년별로 효과간 차이를 보면,



(1) 프로그램의 효과는 성별과 계열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었고, 심성계발·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성교육프로그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평균 $4.0(\bar{X}>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 프로그램 차이검정을 보면 성별과 계열별에서 '이타적인 삶'이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지혜'와 '참된 나 발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균이 $\bar{X}>3.95$ 이상이어서 중도탈락생들에게 T교육원 프로그램들이 커다란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프로그램이 '학교인식에 대한 변화' 차이검정에서 성별은 '복교후 반드시 졸업하겠다'만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을 뿐 계열별 및 학년별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복교 후 적응도의 성별, 계열별, 학년별 차이를 보면,

(1) 친구관계 차이검정에서는 계열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었고, 교사관계에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 ($P<.05$), 부모관계에서는 성별($P<.05$)과 계열별($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부모 관계, 봉사활동 관계, 교사 관계, 친구관계 순으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다.

(2) 복교 후 학교 적응도에서 1학기동안 무단결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2학기동안 무단결석은 계열별과 학년별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으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학기동안은 15일 이상 무단결석이 16%인데 반해 2학기동안은 75.5%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복교후 1년동안 가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49%학생이 가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복교후 1년동안 성별과 계열별로 정계 상황 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結 論

T교육원의 학교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한 이후 제주도 중도탈락생들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중도탈락 되기 이전의 가정·학교·사회생활 만족도와 중도탈락을 하게 된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활의 만족과 중도탈락의 관계가 서로 부적(-)상관관계인 $P<.0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태도를 사전에 잘 관찰

하여 지도해 나간다면 중도탈락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T교육원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효과를 보면 성별·계열별로 심성개발, 부모 참여, 봉사활동,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두 평균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복교후의 학생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학교적응 프로그램에서 자아정체감의 개선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졸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가 고학년이 될 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보다 일찍 투입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T교육원에서의 학교적응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 차이 검정 결과 성별과 학년별에서 졸업의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저학년에 투입된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 복교 후 관계 개선 차이 검정을 보면 친구관계, 교사 관계, 부모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는 계열별에서 교사 관계 개선에서는 성별로, 부모 관계 개선에서 성별과 계열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친구관계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보다 높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 유형에 따라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교사 관계 개선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관계개선에 있어서 성별은 남학생이, 계열별에서는 인문계 고교가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복교전 보다 복교후 관계개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 학교에 재입학 하여 학교단위에서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이 있게 된다면 정상적인 졸업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

여섯째, 복교 후 1년 동안 무단결석이 1학기 때는 16%인데 반하여, 2학기 동안은

75.5%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또는 T교육원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교적응 재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복교 이후 추수지도 및 상담활동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복교 이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징계 받은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복교이후 남학생과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T교육원의 학교적응교육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수지도 및 상담활동이 미흡하여 다시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광주광역시(1996), 「중·고교 중퇴 청소년 종합 대책」.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이종(1995), 「청소년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재홍(1991),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건전 육성 대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창선(1991), “청소년비행과 범죄양상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월보(1997), '97년 1월호, 7월호.
- 민경연(1992), “미진학 근로청소년에 대한 참만남 집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수(1998), “중퇴생 예방의 대안과 과제-’98청소년상담학술세미나”,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박순규(1996),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인심(1996), “비행학생의 학교조직관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윤(1997), “학생징계 제도와 운영 실태”, 새교육 3월호.
- 법무부 보호국 소년 2과(1995), 「보호소년통계 제 10집」.
- 부산광역시(1996), 「중·고교 중퇴 청소년 종합대책」.
- 새교육(1997), '97년 3월호.
- 새교육 신문(1997. 10. 6.), 「98년 개교 예정 대안학교」.
- 송광성 외(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송 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 이광희(1995), “청소년비행 동기요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이소래·최은영(1997), 「비행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II 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숙영 외 2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영희(1992),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마련”,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재창(1997), 「중퇴생의 예방을 위한 진로상담강화 방안」, 진로교육연구 7권.

이진영(1997), “대안학교 내년 개교, 얼마나 가능한가”, 새교육 '97. 7월호.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선도 정책」, 진로교육연구 7집.

장석민 외(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전국학생수련교육연구회(1997), 「학생수련교육」, 창간호.

_____ (1998), 「학생수련교육」, 제 2호.

_____ (1999), 「학생수련교육」, 제 3호.

전범배(1997), “학생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학교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민일보(1999. 5. 26.), 「10대 가출 귀가조치가 전부-'98년 중도탈락 현황」.

조선일보(1997. 7. 16.), 「복교생 부적응 실태」.

중앙일보(1997. 7. 2.), 「특성화 고교 내년 10 여 곳 문연다, 최소정원 60명-골프에서 제빵까지」.

_____ (1997. 7. 2.), 「98년 설립예정 특성화 고교」.

_____ (1997. 10. 12.), 「학교폭력 우리가 맡을래요」.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소.

청소년 백서(1997),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 발행.

탐라교육원(1997), 「고등학교 진취력 배양교육 지도서-고교 재입학 희망자 교육」, 1권.

_____ (1998), 「고등학교 진취력 배양교육 지도서-고교 재입학 희망자 교육」, 2권.

_____ (1999), 「고등학교 진취력 배양교육 지도서-고교 재입학 희망자 교육」, 3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유진(1995), “비행 청소년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허철수(1998), “잠재적 중퇴생을 위한 시·군·구 상담실의 상담지원 체제-중도탈락 학생 예방체제 개발을 위한 콜로키움”, 청소년대화의 광장.

_____ (1998), “잠재적 중퇴원인과 상담지원 정책 연구”,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허철수 외(1998), “잠재적 중퇴원인과 상담지원 정책 연구-’98제주청소년복지정책 연구보고”, 제주도 청소년종합 상담실.

Caldwell, R. G. and Black, J. A. (1971).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Ronald Press.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Chicago : Free Press.

Miles, M. B. (1981). *Learning to work in Group*.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Merton, R. K. (193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Sherman, D. (1996). *Creating the Drop out - An Institutional and Social History of School Failure*.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Education on School-Dropouts.

Nam - Soo Kim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on-Hyo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of school-dropouts after getting school adjustment education and then coming back to their school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ga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being satisfying with home, school, and social life just before leaving schools, and leaving school in mid-course. This means that the dissatisfaction followed deviance and the deviance was linked to leaving schools.

Second, the school adjustment education of 'T education center' was revealed effective. After also, the perception of schools was greatl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changed positive.

Third, during the first term after returning to their schools, the dropouts were adapted well to their schools, but beginning the second term, the circumstance of disciplinary punishment for long-time absence, run-away home, and school-rule violation was greatly increased. For example, the rate of over-15-days absence was 16% during the first term, but it was increased to 75% starting with the second term, and that of run-away home to 77%.



< 부 록 >

복교생 실태 조사 (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조사하여 그 개선책을 찾고자 만들어진 설문지입니다. 이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만이 제주도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결과는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평소에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연구실

● 다음은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번호 앞에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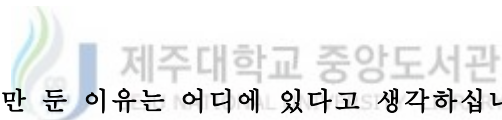
2. 내가 다니던 학교는?
 ①시지역 인문계 ②시지역 실업계
 ③읍·면지역 인문계 ④읍·면지역 실업계

3. 내가 다니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생활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을 표해 주십시오.

※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에, 가정·학교·사회에서 얼마나 만족을 느끼며 생활 하셨습니까?

| | 진 만족안함 | 혀 만족안함 | 별 만족안함 | 로 그렇다 | 그 그렇다 | 저 만족한 편이다 | 매 우 만족하다 |
|--------------------|-----------|-----------|-----------|----------|----------|-----------------|----------------|
| 1. 가정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 학교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 친구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 내가 사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내가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 혀 아니다 | 혀 아니다 | 별 아니다 | 로 그렇다 | 그 그렇다 | 저 그런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매 우 그렇다 |
|----------------|---------------|----------|----------|----------|----------|--------------------------|---------------|
| 5. 부모 사이의 가정불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6. 선생님이 싫어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7. 나쁜 친구를 만나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8. 자기 자신의 문제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탐라교육원에서 여러분이 받은 프로그램은 얼마나 만족 하셨습니까?

- | |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 도움이
안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큰
도움이
되었다 |
|-----------------------------------|-------------------|-------------|------|------------|-----------------|
| 9. 나에게 심성개발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에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에게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은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여러분이 느낀 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 'V' 또는 'O'표를 해 주십시오.

- | |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 도움이
되었다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13. 나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전
도
움
이
안
되
었
다 | 혀
도
움
이
안
되
었
다 | 그
저
도
움
이
그
렇
다 | 매
우
도
움
이
되
었
다 | |
|-----------------------------------|--------------------------------------|--------------------------------------|--------------------------------------|--------------------------------------|---|
| 16. 내 자신을 개방하고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나는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학교에 복교하여 반드시 졸업하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적응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탐라교육원에서 학교적응교육(진취력 배양교육)을 받은 후 학교에 복학하여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98.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연구실



1. 성별은? _ ① 남자 _ ② 여자

2. 내가 다니던 학교는?
_①시지역 인문계 _②시지역 실업계
_③읍·면지역 인문계 _④읍·면지역 실업계

3. 내가 다니던 학년은?
_①1학년 _②2학년 _③3학년

※다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만족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내용
들입니다. 해당란에 ‘V’ 또는 ‘0’표를 해주십시오.

| | 매우 불만족하다 | 불만족하다 | 그 저 그렇다 | 만족하다 | 매 우 만족하다 |
|--------------|-------------|-------|------------|------|-------------|
| 21. 친구들과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선생님과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부모님과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러분은 학교생활에서 무단결석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 | 무단결석 (30일 이상) | 무단결석 (15~29일) | 무단결석 (8~14일) | 무단결석 (0~7일) |
|----------------------------------|------------------|------------------|-----------------|----------------|
| 24. 복학후 1학기 동안 무단결석을 몇일 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 25. 복학후 2학기 동안 무단결석을 몇일 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 여러분은 학교 복교 후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습니까?

| | 자주 있었다 (3회 이상) | 있었다 (2회 이하) | 그 저 그렇다 | 성실하다 | 매 우 성실하다 |
|-------------|-------------------|----------------|------------|------|-------------|
| 26. 봉사활동 현황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가출 현황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징계 현황 | ① | ② | ③ | ④ | 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